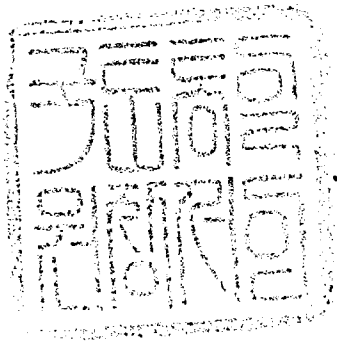


北韓의 對南戰略과 우리의 對策

1974. 11.



國土統一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機關：全北大學校 極東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蔡 中 默 梁 琮 懿

目 次

一. 問題의 提起	3
二. 四強의 外交政策 基調	5
1. 美 国	5
2. 日 本	6
3. 中 共	7
4. 蘇 聯	8
三. 極東에 있어서의 四強構造의 力学關係	10
1. 美·中共關係	10
2. 美·日關係	11
3. 日·中共關係	12
4. 日·蘇關係	14
5. 中·蘇關係	15
四. 四強의 對韓半島 政策	19
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19
2.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19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21
4.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22
五. 우리 의 統一 努力	27
六. 北傀의 對南戰略	30
1. 北傀의 特異性	30
2. 對南戰略의 變遷過程	34
3. 「人民民主主義革命」 路線	47
七. 結 言	56
<< 「統一問題」세미나 綜合討論 要旨 >>	59

一. 問題의 提起

1945年 以來 20年間 繼續되어온 美蘇 兩極體制가 變質되어 戰禍에서 벗어난 日本과 歐洲가 內實의 힘을 背景으로 独自の인 路線을 걷게되고 中共이 加担하여 國際社會는 美, 蘇, 中, 日, 西歐의 五大勢力圈을 主軸으로 하는 多極構造를 이루게 되었다. 이 多極構造 正 確히 말해서 五極構造라는 말은 1971年 7月 Nixon 美大統領의 肯尼迪市에서의 演說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이 演說에서 向後 5年 乃至 10年後의 世界는 美國·蘇聯·西歐·中共·日本의 5大勢力에 依해서 움직여 나갈 것이라고 말하므로써 5極構造란 말이 널리 使用되었다.

그 理由는 ① 戰略的 軍事力인 核武器가 國際政治的 役割로서의 效率性이 低下되었다는 것과 ② 第2次大戰以後 繼續되었던 美國의 國際秩序를 追求하려는 美國의 努力이 越南戰을 經驗으로 그 能力에 限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③ 國際社會에 있어서 各國의 實力이 平準化 傾向을 이루고 있다는 것 ④ 共產陣營에 있어서도 蘇聯과 中共의 對立 및 各自 自國의 經濟發展으로 國民生活을 安定시키자는 意慾 ⑤ 中小國들의 覺醒 等を 들 수 있다.

Nixon doctrine 은 이러한 多極化構造에 맞추기 위한 美國의 政策轉換으로서 그것은 ① 美國의 世界的 役割을 될 수 있으면 縮少하고 ② 新生國에 대해서는 自助의 原則을 強調하고 ③ 國際現實에 對해 現狀을 認定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過去 冷戰時代의 諸政策을 整理하고 多極化世界에 適應하려는 政策이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極東에서는 西歐를 除外한 美·日·蘇·中共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極東에 있어서 唯一한 弱少國이라는 것과 地政學的 位置의 与件으로 보아 이들 四強의 國際關係가 우리의 統一問題에 重大한 影響을 미친다는 点에서 이들의 國際力學關係는 우리의 統一努力에 直結되어 있다 하겠다.

오늘날 全體的 國際社會의 風土가 核戰爭을 回避해야 한다는 大命題下에 對決에서 平和共存으로 指向하고 理念과 體制를 달리 하는 國家들 間에 關係改善과 協力體制를 積極 發展시키고 있음에도 不拘하고 唯獨 北傀만은 이러한 國際政治의 一般的 潮流를 外面하고 아직 도 冷戰時代의 鬭爭的 好戰的 強硬한 暴力赤化革命 路線을 固守하고 積極的으로 推進하고 있다. 北傀의 이러한 路線으로 因해서 韓半島에서는 國際潮流의 變化와 相關없이 冷戰期의 緊張이 持續되고 있으며 北傀의 이러한 戰略이 對外的으로는 平和統一의 看板 밑에 음폐되어 우리의 統一努力을 더욱 複雜하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四強의 極東에서의 力學關係와 北傀의 음폐된 對南赤化統一戰略을 파헤치는 것이 本 論文의 目的이다.

二. 四強의 外交政策 基調

1. 美 國

美國은 蘇聯과의 冷戰時代의 對決政策을 清算하고 協力을 通해서 美國의 安全 나아가서는 世界의 安全에 對한 最大의 威脅을 回避하고 勢力均衡에 依해서 緊張을 緩和시키고 世界平和를 維持하여 美國의 國家利益을 保護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한 基調위에선 美國外交政策의 表現은 「和解에서 協力으로」라는 붓토아래 中共과의 새로운 關係를 摸索하고 日本의 國際的地位를 昇格시키고 蘇聯과는 戰略核武器制限(SALT)會談에서 第一次의인 成功을 거두고 西歐와의 友好關係를 強化하고 있다.

이러한 美國의 外交方向은 Ford大統領의 登場에도 變함이 없을 것 같다. 勿論 Ford外交는 議會와의 協力에 依한 外交로써 多少 軌道修正이 予想되지만 그의 施政演說에서 ① 太平洋地域과 日本等 同盟國과의 相互協力 ② 熱核時代의 美,蘇兩國民은 積極적으로 平和關係維持 以外의 다른 選擇의 길이 없다는 點 ③ 中共과는 上海聲明의 原則에 繼續 充實할 것 등을 다짐한 것으로 보아서 Nixon doctrine을 繼續 踏襲 發展시킬 것으로 予想된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은 昨年 11月 키신저가 中共을 訪問했을 때 北京의 人民大會에서 「앞으로 美國內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中國과의 親善關係는 美國外交政策의 變할 수 없는 要素中의 하나」라고 聲明하므로써 美國外交의 持續性을 밝힌 바 있고 지난 10月 7日 亦是 키신저는 記者會見에서 美友邦國들이 美國의 支援으로 自衛力을 確保

케 하는데 目標을 둔 Nixon doctrine이 앞으로 繼續 Ford 行政
府의 基本政策이 될 것이라고 宣言하였다.

2. 日 本

戰後時代의 大部分을 通해서 그들의 安全을 美日安保 條約에 依
存하는 同時에 그들의 安保가 美·蘇·中共의 關係如何에 따라 左右
된다는 것을 知하고 美國과 步調를 같이 하면서도 冷戰 issue에
對한 介入을 回避하면서 強大國間의 均衡에 依한 平和를 希望해 왔
던 日本은 安保負擔을 美國에 맡긴채 經濟成長 輸出增大 만을 獲策
하여왔다. 이와같은 日本의 安保政策은 日本의 國家利益增進에 絶對
的인 役割을 하여 드디어 世界第3位의 經濟大國으로 成長하였다.

經濟大國이 된 日本은 政治大國으로 轉身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
에 그들의 安保와 國利를 위한 獨自의 基盤의 必要를 느껴게 되었
다. 特히 71年 Nixon shock (Nixon의 中共訪問宣言 弗保護政
策宣言)以後 日本의 그같은 覺醒은 더욱 切實하여 漸次 對美一辺倒
에 依存하는 데서 脫皮하여 自國의 獨自의 防衛力을 強化하고 또한
強大國間 均衡에 보다 많이 依存하는 路線을 걷기 始作하였다.

그 結果 73年 8月 31日 發表된 日本外務省의 外交青書는 「均
衡外交」의 必要성과 「日本의 國力에 맞는 現實主義外交」의 必要
성을 力說하고 中曾根 日本通商相(前 防衛庁長官)은 「非常事態에
直面할 境遇 日本 海上防衛隊는 日本商船을 保護하기 위해서 그 作
戰海域을 領海로부터 1,000 K 까지 擴大할 것이다」宣言하였다. 勿論
日本은 美國과의 最大 友邦關係를 持續하고 美日 安保條約에 따르는

것이 外交安保政策의 基軸이지만 漸次 独自の인 安保의 基盤을 마련하고 있다.

3. 中 共

中共의 外交政策의 基本目標은 他強大國과는 달리 더욱 切實한 現안문제가 있다. 그것은 國家의 安全이나 國家利益의 保護라는 一般論的인 것 以外에 台灣解放과 完全獨立의 維持가 當面目標로 되어 있다. 中央은 그들의 國家安全을 위해 過去 한때는 相當히 커다란 代價를 支払하면서 蘇聯과 同盟關係를 維持해 왔다.

蘇聯에 對해서 旅順港使用權 長春鐵道共同管理權을 提供하고 外蒙古에 對한 主權主張을 拋棄하여 民族的 自負心を 侵害 當하면서까지 蘇聯과 同盟關係를 維持하고자 하였다. 그 理由는 ① 急速한 工業化를 위해 必要한 資本과 同盟體制를 維持해야 했고 ② 美國의 核攻擊威脅으로 부터 保護하기 위해 蘇聯의 核保護가 必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64年 10月 中共은 独自の 核實驗에 成功하고 이 때부터 代價가 큰 蘇聯과의 同盟關係를 清算하고 独自の 安保體制를 確立하였다. 中共이 蘇聯과 對決하면서 부터 그들의 安全을 위하여 第一 關心事는 中共이 他國 또는 他國家群에 依해서 包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中共은 蘇聯의 集團安保構想에 反對하고 日本으로 하여금 그같은 體制에 參與하지 말도록 促求하였고 美國과의 關係改善에 努力하고 있다.

民族的 긍지와 國家的 위신에 關係되는 台灣解放을 위해서 美國과 政治協商을 하려하고 있고 蘇聯과는 國境紛爭으로 予防戰爭 乃至 奇

襲攻撃의 危險 앞에 있어 이러한 威脅으로부터의 完全解放을 完全獨立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蘇聯과 對決하고 蘇聯으로 부터 威脅을 除去해줄 모든 要素를 動員하고자 한다.

4. 蘇 聯

蘇聯의 外交政策 基調는 共產圈의 宗主國으로서의 主導權 維持와 影響力 增大 經濟發展 安全保障維持 等이고 그 具體的 政策으로서 強大國間의 緊張緩和를 통한 安全과 平和의 追求 交易擴大 美國 日本等과 經濟開發 協力 中共 包圍의 目的으로 國境防衛를 위한 軍事力 增強과 亞細亞集團 安保體制의 構想 蘇聯海軍의 印度洋 및 太平洋 進出 等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基本的 立場에서 蘇聯의 外交行態를 보면 ① 第三世界에 對해서는 機會主義的이고 ② 東歐에 對해서는 支配的이고 ③ 美國과 西歐사이에서는 分裂的이고 ④ 戰略的 活動舞臺에서는 威脅的이라 評價될 수 있다.

그러하여 蘇聯은 美國의 武器를 두려워 할 必要가 없는 곳에서는 適切히 蘇聯의 힘을 增進해 나가는 反面 惡化된 技術的인 隔差를 改善하기 위해서 西方의 經濟資源을 適期에 利用하므로써 均衡의인 友好에 依해 平和共存의 最大의 利得을 取하려 摸索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의 이러한 緊張緩和 政策은 全面的인 核戰爭을 回避하는 것이고 그 以外의 面에서는 東西間의 競爭과 이데오로기의 對立相克을 避하지 않는 것을 基本內容으로 하고 있다. 今年(1974) 3月初 蘇聯 黨機關誌의 하나인 「黨生活」揭載論文에서 蘇聯이 西方의 detente 政策에 呼應하여 共產主義의 世界革命의 大義를 拋棄했

다는 外國共産黨들의 非難을 반박하여 「蘇聯의 平和共存政策은 1969
生 모스크 世界共産黨大會에서 承認되고 第24次 蘇聯共産黨大會에서
再確認한 바와 같이 世界革命을 위한 하나의 戰略이며 決코 이데오
로기戰爭을 弱化시키는 것이 아니다」하여 過渡的 共存, 部分的 協調에
不過함을 明白히 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外交戰略에 憂慮를 表明하여 緊張緩和期間 增加된
東西貿易과 西方의 軍事的 減縮은 蘇聯으로 하여금 軍事的 再建의
機會를 주는 것이라 主張하는 사람도 있다. 反蘇物理學者인 「안드
레이 사하로프」는 西方側의 蘇聯과의 和解는 世界에 對한 重大한
威脅을 招來하는 것이라」고 主張하였다. 그 理由로서는 「蘇聯에
對한 莫大한 量의 技術援助는 蘇聯에게 그들 스스로 解決하지 못하
는 經濟問題를 解決해 주는데 도움을 줄뿐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蓄
積된 힘을 集中시키도록 可能케 한다」고 主張하였다. 부레즈네프는
1973年 봄 東歐指導者들에게 「自己의 detente政策은 앞으로 10
年以內에 西歐를 後駕할 經濟的 軍事的 優越을 成就하기 위해 計劃
된 戰略이라」고 言明하므로써 뜻있는 사람의 憂慮를 뒷받침하고
있다.

三. 極東에 있어서의 四強構造의 力学關係

이상과 같은 各國의 外交政策 基調에 비추어 보면 極東에 있어서의 四強의 相互力学關係도 이러한 基調 위에 서있음을 알 수 있다.

1. 美·中共關係

美國의 立場에서 보면 中共에 對한 關心은 ① 世界戰略으로서의 勢力均衡 ② 亞細亞情勢가 美國에 有利한 方向으로 安定됨으로써 이 地域에서의 美國役割의 減少 ③ 中共이 美國의 國家利益의 增大에 寄與할 것을 期待 等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基本的 立場에서 있기 때문에 Ford 行政府의 政策도 別다른 變化없이 中共과의 友好關係를 增進해 나갈 것이다. 同時에 中共의 美國에 對한 關心은 ① 美國과의 關係改善이 蘇聯에 對한 牽制作用을 해줄 것을 期待하고 ② 美國의 技術과 資本에 對한 期待 ③ 台灣問題의 解決 等を 들 수 있다.

中共은 文革을 통해서 對內整備가 一段落되었지만 核開發의 無理와 文革의 衝擊으로 經濟發展의 鈍化를 가져오고 이를 挽回하기 위한 經濟開發은 對外與件의 好轉이 前提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中共은 對蘇 對美의 壓力中 어느 한편의 威脅을 排除하고 親善關係를 맺으므로써 資本과 技術의 協力이 必要한 것이다. 國境問題로서나 國際共產主義의 리더십問題로 對立하고 있는 蘇聯과는 英國撤収後의 東南

而 印度洋에 의 進出에 있어서도 라이벌關係에 있다. 따라서 美國과 의 和解로써 對蘇 對決에 있어서 自身의 立場을 強化시킬 뿐만 아니라 自己周邊의 美軍撤収를 促進시켜 軍事的 壓力을 排除하고 台灣 解放을 美國과 의 協商에 依해서 平和裡에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며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防止하고자 하는 것이다. 日本을 美國의 核雨 傘 밑에 묶어 둠으로써 獨自의 核保有를 防止하고 그의 相對的 軍事力을 抑制하려는 中共의 意圖와 日本의 国力을 現實化시키고 自己의 代役을 担当시키는 反面 더 以上の 軍國主義化와 自己의 統制로부터의 離脫을 防止하고 政治的 影響圈으로 存続함을 바라는 美國의 政策이 一致한다. 이러한 兩國의 相互關心은 兩國의 和解와 接近을 急速化하는 要件들이다. 따라서 Ford 行政府도 前行政府와 政策上으로 變化가 있을 수 없으며 다만 앞으로 毛首席이나 周恩來 首相 死亡後 後繼者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變化가 있을 것이지만 西獨週刊 時事誌 「슈피겔」의 最新号는 毛沢東이 10月 7日에 公開된 그의 私信에서 自身이 死亡後 黨 右派가 左派를 누르고 權力을 掌握할 것이다. 予言하였다는 것으로 보아 展望은 밝다 할 수 있다.

2. 美日關係

終戰以後 美日關係는 緊密하고도 多樣하여 모든面에서 協力關係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이며 再論할 必要가 없는 것이지만 Nixon shock 以來 日本의 自主性 回復努力 그리고 그 實利外交의 方向은 予測하기 어렵고 最近 75年度 美國防予算 歲出 法案의

附帶文書 形式으로 提出된 「極東에 関한 報告書」에는 美国의 極東에서의 利害의 長期目標를 緊急히 再檢討해야 할 必要가 있으나 아직 實踐되지 못하였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問題를 提起하고 있다.

① 安保問題에서 美国에 寄托하여 美国予算의 出血을 強要하는 日本은 이제 그 費用을 分担해야 한다.

② 駐韓美軍의 存在理由는 美国의 亞細亞政策에서 重要한 日本에 安定感情을 주는 政治的 効果에 있다.

③ 駐韓美軍 撤収의 前提는 韓半島의 不安을 政治적으로 解決하는 미니시에이티브가 必要하다.

④ 比較的 가까운 将来에 日本의 大幅的인 軍備增強은 避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러한 再武装을 美国目標에 一致하는 方向으로 誘導해야 한다.

美国下院歳出委가 이러한 見解의 實踐을 중용하고 있음은 Ford 外交가 議會와의 協力外交라는 点으로 볼때 美国의 対日政策을 시사하는 것이지만 오는 11월에 있을 Ford 美大統領의 訪日時에 그 輪廓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다.

3. 日·中共關係

71年 8月 Nixon의 中共訪問計劃 發表와 美国의 弗防衛措置는 日本으로서는 하나의 커다란 속크였다. 이 Nixon shock後 日中共間의 團交가 正常化되고 經濟交流는 增加一路에 있고 特히 經濟分野에서 兩國關係는 크게 增大되고 있다.

中共은 蘇聯에 日本의 北方4個島 返還要求를 支持하고 있는 바

理由는 ① 蘇聯이 日本에 그 도서를 返還하면 中蘇가 紛争하고 있는 国境地域에서 蘇聯의 讓步를 얻기 쉬운 名分이 強化된다는 것과 ② 蘇聯의 進出은 可能的 限 적을 수록 좋다는 基本的 立場에서 이다. 日本 亦是 A G F (亞細亞競技聯盟) 執行委員會에서 台灣을 遂出하고 中共이 加入하는 데 앞장을 섰으며 周四原則을 支持하고 蘇聯이 提示한 亞細亞集團安全保障體制에의 參加를 中共의 呼訴를 받아들이어 反對하고 外交靑書에 밝힌 바와같이 均衡外交의 原理에 따라 中蘇關係에 均衡을 取하고 있다. 中蘇兩國은 日本의 政治大國化 軍事大國化를 不願한다는 點에서 共通되고 있지만 中共은 美日安保條約 日本軍隊의 現代化를 間接적으로 支持하여 日本과 協力, 蘇聯의 亞細亞進出을 阻止하는 데 힘쓰고 있다. 周恩來가 中共을 訪問한 日本 左派社會黨 議員들에게 그렇게 反對하였던 美日安保條約이 亞細亞의 安全에 寄與한다고 言及한 것은 日本이 美國과의 紐帶를 清算하고 政治적으로 軍事적으로 大國化함을 願하지 않는다는 것을 意味한 것이고 日本이 새로 展開되고 있는 四強關係에서 經濟的 實利와 軍事的 觀點에서 對美關係에서 벗어나 激烈히 對立하고 있는 中蘇어느 便에도 接近이 不可能한 것이다.

中蘇對立 關係의 均衡外交에서 實利를 얻고 있는 日本의 外交는 石油貿易에서도 그 實態가 如實히 證明되고 있다. 그것은 蘇聯이 1965年 시베리아開發을 위한 日蘇經濟提携를 摸索하고 쥬베니油田 開發과 야구트天然가스 開發에 成功하고 쥬베니油田의 送油管이 中蘇 國境을 沿하여 附設되도록 計劃하고 있었으므로 中共으로서는 日蘇의 對中共 包圍網을 念慮하지 않을 수 없고 現在의 中蘇國境이 그대로

固着되지만 일어나는 憂慮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中共은 시베리아 開發이 本格化됨에 따라 蘇聯 極東軍의 補給問題가 解決되고 石油化學工業 建設을 바탕으로 蘇聯의 戰力이 強化되는 데 神經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中共은 日蘇의 經濟提携를 不快하게 생각하고 日蘇의 密着을 牽制하기 위해서 原油 100萬屯을 日本에 輸出하였다. (73年 4月~12月間)

4. 日蘇關係

戰後 日蘇는 北方 4個島 返還問題를 비롯하여 政治問題는 未解決인채 懸案問題로 남아있지만 經濟的 協力關係는 密接한 바 1965年 부터 시베리아 開發을 서두른 蘇聯은 日本經濟使節團의 訪蘇를 契期로 石油採掘工業相의 입을 통해 「츄베니 나호도카間的 파이프 라인 (約7,000 km) 建設에 3~4年에 걸쳐 20億루블이 所要되는 바 日本이 石油供給을 願한다면 1971年度 分을 67年 또는 68年에 投資하여야 하며 이 經濟協力問題를 진지하게 討議하기를 希望한다」 하여 日蘇經濟協力の 可能性을 시사하였고 日本도 日蘇貿易擴大 可能性으로서 이 問題에 関心を 가졌지만 中共과의 關係때문에 進展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73年 4月 中共의 對日 原油輸出 政策에 刺戟되어 츄베니天然개스를 即刻 日本에 輸出하기로 合意하고 10月 10日 (73年) 모스크바에서 發表된 日蘇共同聲明에는 「시베리아天然資源의 共同開發, 貿易 運輸 農業 漁業 等の 分野에 協力 促進할 것에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74年에 들어 蘇聯은 시베

리아 開發을 積極化하여 2月 14日 브레즈네프는 시베리아開發을 中心으로 日蘇經濟協力の 擴大를 提議한 親書를 田中首相에게 보내고 74年 6月 3日에는 日蘇間에 調印된 南야쿠트 原料炭의 輸入 프로젝트를 為始하여 야쿠트天然가스 輸入 츄베니油田의 原油輸入, 사하린 大陸棚의 共同採鉞等 4個의 프로젝트에 參與하므로써 日蘇經濟協力 關係는 急速히 增大되고 있다.

中蘇對立이란 國際政治의 場에서 蘇聯은 시베리아 開發問題를 對中共 包圍網, 中蘇國境線의 固着, 蘇聯 極東軍의 補給問題 解決等を 通한 戰力強化策을 取하고 있고 中共은 對日原油輸出로 이를 牽制하고 있는 바 日本은 이 兩國과의 均衡外交에 依해서 最大의 實利를 取하고 있는 것이다.

5. 中蘇關係

우리의 至大한 關心事는 中蘇關係라 할 수 있다. 언제부터 中蘇가 不和하기 始作하였는지 正確히는 알 수 없지만 1958年 10月부터 表面化하기 始作하였다. 60年代를 前後하여 共產主義 世界 全般에 걸쳐 「社會主義經濟」는 經濟資源의 보다 合理的인 開發이란 美名下에 重化學工業을 蘇聯에 集中시키고 中共을 包含한 共產衛星國家에게는 이를 不許하므로써 蘇聯을 宗主國으로 하는 隸屬的인 經濟的 連關關係를 確立시키려는 蘇聯의 意圖 때문에 中共은 工業化에 必要한 資本과 技術의 協力を 蘇聯으로 부터 期待할 수 없게 되었다. 1959年 6月에는 國防新技術에 關한 中蘇協定을 破棄하고 原爆生産 資料 提供約束을 撤回하여 中蘇關係는 惡化一路에 있었고 中共은

蘇聯에 理念上 宣戰布告를 하고 蘇聯과 經濟的 斷交를 하게 되고 蘇聯은 60年 5月 中共에 派遣되었던 科學者 技術者 1390名을 全員 召還하고 軍事援助를 中斷시켰다.

1959年 9月 當時 蘇聯共産黨 書記長이며 首相이었던 후루시초프가 事前에 中共과 一言半句의 協議도 없이 美國을 訪問하고 相異한 體制 相互間에 平和共存을 全世界에 誇示한 바 이런일이 있는 후부터 中蘇關係는 惡化되고 中共은 對蘇不信으로 蘇聯 또는 美蘇에 依한 中共의 包圍라는 毛沢東의 惡夢을 자아냈던 것이다. 이어서 후루시초프가 60年 2월에 印度 및 印尼를 訪問한 것은 中共에 커다란 衝擊을 주었고 周恩來도 부랴 부랴 4月 印度를 訪問하여 領土問題의 暫定的 妥結을 보았다.

1968年 8月 21日 蘇聯의 捷코侵入과 브레즈네프 Doctrine 宣言은 中共에 大衝擊을 주어 文化革命後 政治的 混亂을 收拾하기 위해 열린 69年 4月 1日의 九全大會에서 中共은 對蘇威脅에 對處할 것을 論議하고 이때 周恩來는 美國을 包含한 其他國家와 外交關係를 樹立하여 間接的인 牽制方法을 主張하였으며 對蘇強硬態度를 申明하고 黨規約에 明文化 하였다.

이렇게 中蘇關係가 惡化一路에 이르러 中蘇國境 衝突事件의 頻繁으로 繼續 軍事力을 增強하여 最惡의 事態까지 이르자 69年 9月 11日 北京 空港에서 코시킨은 周恩來와 會談하고 10月 20日은 北京에서 國境問題를 協商하고 1970年 末에는 中蘇新貿易 協定을 縮結하여 兩國間의 不幸의 阻止를 위해 努力하였다. 그러나 蘇聯은

国境問題を 登場시키므로써 中共의 对東南亞 및 極東地域에 对한 関心을 分散시키려는 高度의 戰略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傾向은 1969年 Nixon doctrine 發表後 더욱 뚜렷해지고 美国의 亞細亞에 서의 後退로 生길 空白을 蘇聯 主導下에 메꾸자는 戰略을 세우고 있다. 이러한 戰略은 69年 6月 브레즈네프 發表의 亞細亞集團 安保構想으로 表現된 바 이것은 그 規模가 뚜렷하지는 않으나 確實히 中共의 威脅을 意識한데서 出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蘇聯의 亞細亞集團安保体制의 原則은 1972年 3月 20日 브레즈네프 書記長이 蘇聯邦勞組大會에서 亞細亞安保体制의 基本 原則 5個項目을 發表하고 74年 8月 6日 코시킨首相이 訪蘇中인 이란의 호메이다首相 歡迎晩餐會席上에서 5個項目을 追加하여 10個原則으로 된 바 ① 武力不可侵 ② 主權尊重 ③ 領土不可侵 ④ 內政不干涉 ⑤ 經濟 其他 分野에서의 互惠平等의 協力 ⑥ 民族自決權의 尊重 ⑦ 侵略에 依한 領土併合 禁止 ⑧ 國際紛爭의 平和的 解決 ⑨ 天然資源保有의 主權 尊重 ⑩ 社会經濟政策의 權利承認 等이며 1973年 9月 10日 訪蘇中인 越盟勞働黨 第一書記 레 투만 同首相 晤반둥을 위한 午餐會席上에서 南北韓을 비롯한 모든 亞細亞 國家들이 例外없이 平等, 善隣協力關係를 樹立할 것을 希望한다고 言明한 것으로 보아 全亞細亞를 蘇聯의 以上の 10個 原則下에 묶어 들려는 政策임을 알 수 있지만 中共은 十全大會에서 의 周恩來의 政治報告로 蘇聯의 체코侵入을 非難하고 中共과 緊張緩和을 願한다면 체코와 蒙古에서 蘇軍을 撤収하고 日本의 北方 4個

島를 返還하여 誠意를 表示할 것을 出張하였다.

蘇聯의 이러한 国境紛爭 造成과 对中共 包圍政策을 阻上시키려는 中共은 周边国을 蘇聯으로 부터 격리시키려는 데 그 政策의 主眼을 두고 있으며 同時에 이 目的으로 美国과의 關係改善을 通하여 蘇聯을 牽制하고 日本의 進出을 阻止시키고자 外交的 布石을 하고 있다.

이리하여 中蘇間에는 現在까지도 相互非難応酬가 繼續되고 있는 바 例를 들면 ① 1971年 3月 19日字 人民日報 解放日報는 蘇聯指導層에 非難을 퍼부었고 ② 3月1日 타스通信은 中共指導部를 새로운 反動分子라 非難하고 ③ 同 10月 닉슨大統領의 訪蘇와 73年 5月 姬鵬飛 中共外相의 유럽訪問, 브레즈네프의 美国訪問으로 加熱되었다. ④ 73年 8月 25日 中共十全大會를 前後하여 이러한 兩國關係는 더욱 惡化되어, 25日字 新華社論文은 후무시초프, 브레즈네프 王朝는 大露西亞 쇼비니즘과 侵略的 擴張主義라 非難하고 ⑤ 26日字 푸라우다紙는 中共指導部는 反平和愛護的이라 非難하였다.

그러나 中共의 10全大會 政治報告書의 末尾에서 平和五原則을 基礎로 对蘇關係 改善을 希望하였고 蘇聯 亦是 第24次 全党大會에서 对 中關係改善路線의 不變함을 強調하여 兩國이 多같이 激突을 回避하고자 願함을 알 수 있다.

四. 4 强의 韓半島 政策

1. 美国의 对韓半島 政策

終戰以後 美国의 韓半島政策의 目標은 南北韓間의 戰爭開發을 防止 하므로써 韓半島에 平和를 維持하는 것이다. 이 政策目標의 達成을 위하여 美軍은 韓美防衛條約에 依拠하여 UN軍 體制로써 韓國에 駐屯하고 國軍의 自体防衛能力構築에 協力하고 있는 바 이로써 두가지 側面에서 實效를 건우고 있다. 美国의 对韓軍事 및 經濟協助는 ① 北韓으로 하여금 戰爭 및 其他 武力에 依한 韓半島 赤化統一政策을 索制하고 ② 韓國과 北傀와의 對話를 열도록 鼓舞한다.

그러나 美国은 北韓의 戰爭遂行能力, 戰爭挑發 可能性을 繼續 認定하고 南北對話 亦是 既存安保體制 基盤우에서만 進展될 수 있다는 點에서 韓國政府와 意見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美国의 对韓半島政策은 또한 美国의 对中 对蘇 对日政策과 關聯하여 美国이 強大國을 相對로 追求하는 緊張緩和政策과 東北亞地域의 平和維持와 直結되어 이地域의 平和維持는 韓半島의 平和維持와 關聯이 있다. 그리하여 日蘇中과 더불어 韓半島 現狀維持 平和共存關係를 公式적으로 制度化하는 方向으로 나가고 있다.

2. 中共의 对韓半島 政策

韓國 戰爭까지는 韓半島는 中共보다 蘇聯의 政策決定過程에 比較的 더 重要作用을 하였으나 休戰後 中共이 韓半島에 關心을 轉向하면서 韓半島를 그들의 安保와 直結시키고 있다. 그러나 其間 北韓과 中共

關係는 起伏이 있었던 바 越南問題를 둘러싸고 北傀는 中共을 民族的利己主義者라 非難하였고 또한 中共을 「左翼機會主義」 蘇聯을 「右翼機會主義」라 非難하면서 自主路線을 宣言한 바도 있었다. 이에 對해서 中共은 北傀를 中間路線 機會主義라 하고 特히 67年 2月 北京의 紅衛兵 포스타에는 金日成을 「살진 修正主義者」 「反革命 修正主義者」 「百萬長者」 「人民은 할벗고 金日成은 豪華롭고 到處에 別荘을 가지고 있다」는 非難口號가 나뉘며 兩國關係는 最惡의 狀態였다.

그러나 1969年 4月 文化革命收拾을 위한 中共黨九全大會와 同時에 對北傀關係가 改善되기 始作하고 69年 9月~10月 崔庸健 朴成哲이 北京을 訪問하여 中國共產黨創建 26週年 記念式에 參席하므로써 雙方間 和解 무드가 造成되고 同年 9月 佐藤 Nixon間 美日共同聲明이 發表되자 中共 北傀間의 反日 反美共同戰線을 再編成하고 79年 4月 周恩來의 平壤訪問을 세기로 北傀와 中共은 密着하여, 日本軍國主義 美帝國主義를 非難하고 對敵鬪爭에서 完全協助를 強調하고 兩國의 紐帶는 韓國戰爭을 通해서 맺어진 「血盟의 同志」임을 強調하였다. 그리하여 中共 北傀間의 5個年援助協定을 締結하고 中共은 對韓半島政策에 있어서 北傀의 立場을 全的으로 支持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71年 9月 새로히 中共 北傀間 軍事援助協定에 調印하여 中共은 北韓의 安保에 共同負擔을 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中共과 北傀가 密着하게 된 理由는 北傀의 對南赤化事業을 위한 反美鬪爭에서 北傀의 立場을 全的으로 支持해주는 中共의 支援이 必要하고 그 背後勢力으로 確保할 생각이 切實하였고 中共은 蘇聯에 對處하기 위한 周圍國과의 關係正常化의 一環으로 自身의 安保와 直接

關係가 있는 北傀를 蘇聯으로 부터 격리시켜 自身の 勢力圈에 確保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3.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

6.25 以後 戰後復旧를 위해서 莫大한 物質支援을 蘇聯으로 부터 받아들인 金日成은 스탈린死後 對蘇態度에 있어서 疎遠感을 갖었고 56年 第2次黨大會를 계기로 經濟的 自立을 위한 對內的 整備를 強化하던 中 同年 2月 蘇聯共産黨大會에서 提案된 平和共存과 스탈린 格下에서 비롯한 中蘇間의 對立이 漸次 激化되고 中共이 北韓에 援助計劃을 서둘르자 北傀는 對蘇 一刃倒政策을 清算하고 62年 큐바 미사일 撤去와 中印國境紛爭에서 蘇聯이 印度를 支持하자 北傀와 蘇聯關係는 冷却되기 始作하였다.

金日成은 후루시초프의 對美平和共存政策을 修正主義라 不滿을 表明하고 暴力 革命手段을 통한 既存秩序의 破壞를 主張하는 中共式 革命論을 支持하였다. 그 後 1965年 2月 코시킨이 北韓을 訪問하여 援助를 再開하고 1969年 5月 포드고르니의 平壤訪問으로 雙方關係가 多少 改善되었지만 1969年부터의 中蘇關係의 惡化로 金日成은 蘇聯의 修正主義보다 中共의 好戰性에 同調하여 中共에 密着하고 1970年

11月 第5次 勞動黨大會에서 金日成은 「修正主義가 國際共産主義運動에 出現하여 團結과 紐帶를 破壞하고 思想的 混亂의 原因이 되었다」 「修正主義는 敵과 同志의 区分을 模糊하게 하고 核恐喝政策에 겁을 집어먹고 美帝國主義에 投降하고 입으로는 反帝立場을 떠들면서도 帝國主義에 秋波를 던지는 것」이라 非難하였다.

그러나 蘇聯과 北傀와의 關係는 61년에 締結된 朝蘇友好條約이 71년에 自動延長되어 現今에도 經濟的 軍事的 支援이 相互貿易이란 手段으로 持續되고 있으며 軍事同盟關係도 維持되고 있지만 72年 5月 모스크바 美蘇共同聲明에서 特定國을 指稱하지는 아니 했지만 國際的 緊張狀態의 誘發을 防止하기 위해서 最大의 힘을 傾注한다는 相互合意한 精神에 비추어 極東地域에 있어서 4大國의 勢力均衡에 차질이 생길 것을 願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南北間의 對話를 肯定的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서 蘇聯의 對北韓 置重政策은 軌도를 넘어 對韓半島政策에 보다 關心을 기울일 것이 豫想될 수 있다.

그것은 美蘇和解政策과 關聯시켜 볼때 韓半島의 重要性을 再認識하게 되고 韓半島에 對한 日本 中共과의 融合關係에서 北韓에만 치우치는 偏狹한 配慮는 自國의 利益에 보탬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4.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주어진 外的條件에 順應하면서 最大의 國家利益을 追求하고 他面 주어진 與件의 限界를 脫皮하려는 自律的 意志가 加하여 窮極的으로 是 對外政策의 基調를 獨自의 方向에서 設定하려는 것이 日本의 外交的 基本目標이기 때문에 日本의 對韓半島政策도 이러한 方向에서 模索할 수 있다. 따라서 이 地域에서 緊張緩和의 促進, 安定維持로 日本의 安全을 圖謀하고 經濟的 實利를 얻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政策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 南北韓間의 勢力均衡과 現狀維持로

戦争開發防止를 願하고 韓國과 既存協力體制를 繼續 擴張하면서 北韓에 對한 새로운 經濟市場開拓에 努力하고 있다.

日本の 對韓關係를 보면 65年의 韓日條約 締結當時 第3條에서 韓國이 韓半島의 唯一 合法政府라는 事實을 認定함에 있어서 日本政府는 自律的 判斷임을 否認하기 위하여 UN의 決議를 援用하고 있다. 이것이 日本政府가 北傀의 存在를 意識하고 漸次 南北韓間 等距離外交를 展開하기 위한 餘地를 남긴 것이었다.

日本の 이러한 意圖는 漸次 露骨化되어 韓日國交가 正常化된 後 安保面에서 韓國을 一衣帶水の 關係라 하면서 實質적으로 安保協力에 寄與한 바 없고 經濟的 實利만을 追求하면서 經濟協力 乃至 經濟援助라 하고 韓國을 最大 友好國이라 하면서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模索하고 있다. 1968年 Nixon 佐藤聲明은 Nixon doctrine 發表後 東南亞에 있어서의 美日安保體制를 再確認하면서 「台灣과 韓國의 安全은 日本의 安全에 緊要(Vital)하다」고 한 것을 72年 日本이 中共과의 國交正常化를 앞두고 이 句節의 台灣關係條項은 無効라 宣言하였다. 이것은 Nixon 佐藤聲明이 中共을 假想敵國으로 한 그때의 狀況과는 달리 日, 中共關係가 正常化되고 日, 台關係가 斷交됨으로써 白紙化된 것이다.

日本の 이러한 對中共關係 改善의 model은 北傀와의 關係에도 適用시켜 漸次 段階적으로 進展시켜 結局 南北韓 等距離關係까지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日本의 意圖는 1972年 「日朝友好 促進議員聯盟을 發足시켰고 그들의 代表團과 平壤에서 「貿易促進에 關한 合議書를 締結하므로써 具體化되어 가기 始作하였다.

7.4 共同声明以後는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를 名分으로 南北韓間의 均衡關係를 利用하여 日本의 資本과 技術이 無國境狀態로 往來할 수 있도록 하였고 드디어 今年 7月 木村外相은 就任直後 69年의 Nixon 佐藤共同声明의 이른바 韓國條項에 言及, 「韓半島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하여 「韓國」을 「韓半島」로 修正하였다. 이것은 日本의 對北傀關係의 接近으로 等距離外交에서 前進的 姿勢라 할 수 있다.

結局 日本은 安保面에서는 韓半島가 他強大國의 支配下에 들어가지 않고 韓國이 共產化되지 않는 데 있고 經濟面에서는 韓半島全体가 日本의 商品市場 및 原料 勞動力 供給地가 되는 데 있다.

日本은 이와같이 韓半島에서의 그들의 利益을 極大化하기 위해서 韓國의 安全이 그들의 安全에 緊要하다는 立場은 日.北傀關係를 緊張시킬 憂慮가 있으므로 이를 止揚하고 韓半島 全体的 安全이란 말로 代替하므로써 韓國의 共產化를 防止하는 同時에 北傀와의 經濟關係를 擴大하자는 것이다.

Nixon doctrine의 広範圍한 適用으로 亞細亞 全域에서 美國의 介入度가 漸次 減少되는 傾向에 있고 그러한 傾向이 極大化될 때 韓國에 對한 美國의 役割을 代行할 可能性이 있다. 이러한 趨勢에 便乘하여 68年 Nixon 佐藤共同声明에서 韓國의 安全이 日本의 安全에 緊要하다고 밝히고 73年 8月 Nixon 田中共同声明에서 美日 安保條約의 存続은 亞細亞 安全을 위한 要因이며 同時에 韓半島의 安全維持와 平和增進에 寄与한다고 明示하므로써 韓半島問題에 美日 共同步調를 誇示한 日本이었으나 木村外相은 지난 8月 13日字 發刊의

Economist誌와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UN總會에서 美蘇中共의 外相들과 만나 國際情勢속의 重大要素인 韓半島問題의 解決을 위한 積極的인 協商을 展開하겠다」고 밝히면서 「韓國의 安全에 對한 美日間의 立場, 韓國의 平和와 獨立 및 安保에 對한 美日間의 見解를 調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한다」 하므로써 韓國問題에 日本의 對美追從外交의 脫皮를 暗示하였다.

이와 같이 日本은 日中共關係가 正常화된 以後부터는 韓半島 全體의 問題에 對해서 漸次 政治的 發言을 해왔다. 이것은 漸次 韓半島에 있어서의 勢力均衡을 日本이 主導하고자 하는 意圖를 表明한 것이다. 要컨대 日本은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4強中에서 韓半島와 가장 致命的 關係에 있으므로 韓半島情勢의 安定이 必要하고 이를 위해 4強國間의 韓半島問題의 政治的 解決을 模索하는 데 이니시에이티브를 取해서 韓半島問題의 安定을 위한 政治的 保障을 誘導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日本의 意圖는 앞으로 더욱 進展시킬 수 있는 好條件下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美國이 韓國에서 後退할 境遇 美國의 代役으로 登場하여 均衡安保를 위한 役割을 担当할 것이며, 美中共和解, 日中共國交正常化, 日蘇接近強化 등으로 日本이 東北亞地域에서 政治的 均衡을 이루는 데 重要한 役割을 担当할 位置에 있고, 앞으로 日蘇平和條約과 日中平和條約의 締結, 시베리아共同開發을 비롯 日蘇協力關係가 強化되고 日本의 第4次防衛計劃에 依한 軍事力의 增強으로 日本은 他3國과 完全히 對等關係로 發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現在 日本은 分斷된 南北韓에 다 같이 大規模의 經濟的 進出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韓을 通해서 他3

國보다 보다 많은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位置에 있다.

그러나 日本의 實利追求를 위한 이러한 對韓半島政策은 緊張緩和라는 日本의 意圖와는 反對로 오히려 南北韓間의 緊張을 高潮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北傀는 日本의 이러한 政策에 便乘하여 對日 接近政策으로 日本의 資本과 技術을 導入하여 北傀의 戰爭能力을 增強시키고 韓日關係를 離間시키는 同時에 北傀의 國際的 地位를 相對적으로 向上시키고 日本内の 朝總聯組織을 溫存 活用하므로써 對南侵透活動을 容易하게 하여 日本을 對南侵透 工作基地化하고 있다. 今年 8.15의 事件은 이 端的인 例이며 앞으로 南北關係의 緊張은 日本을 통한 三角關係에서 더욱 激化될 것이 豫想된다.

五. 우리의 統一努力

以上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오늘날의 國際政治는 冷戰時代의 回轉의 軸이었던 理念은 內面化되어가는 同時에 實利를 追求하는 利己的인 立場이 行動의 軸으로 代替되었다. 따라서 軍事力은 潛在化되고 經濟的인 利益追求가 두드러지게 顯在化되어 가고 있다. 勿論 窮極的인 勝負와 優劣 그리고 位階秩序는 軍事力의 質과 量으로 決定하는 方法外에 보다 合理的인 手段이 없는 오늘날의 國際政治가 熾烈한 軍備競争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事實이지만 共滅을 避하기 위해서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模索하는 것이다.

蘇聯은 中共과의 對立과 競争이라는 紛爭關係에서도 東北亞에 있어서 對西方 姿勢에 유연성을 보이지 않을 수 없고 中共의 對外政策 亦是 理念的 教條主義로 부터 現實的 實利主義로 또한 孤立主義로 부터 制限된 開方의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結局 東北亞의 平和構造는 4強의 對內的 與件과 그들 相互間的 利害關係 그리면서도 戰爭을 抑制하는 것이 共通利益이 된다는 暗然의 合意等 制限된 協力과 統制된 競合關係가 複合되어 어느 새로운 關係秩序를 確立코자 하는 움직임이 成熟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4強은 理念的으로는 東西의 兩分이 分明하지만 利害關係, 文化 制度 등은 異質的이다. 더구나 4強의 對韓半島政策은 더욱 複雜하여 合意點을 찾아서 이를 具體化하여 平和構造를 實現한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의 南北統一 努力은 民族的 自主의 立場에서 對話를

通해서 自主的으로 平和的으로 이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北傀가 反民族的 非人間的 好戰的인 侵略政策을 拋棄하고 南北對和를 誠實한 姿勢에서 推進시켜야 한다. 北傀가 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지 않는 限 南北韓의 平和統一은 遙遠한 것이며 우리의 平和統一努力의 앞날에 許多한 難關이 가로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平和統一은 民族的至上課業이기 때문에 斷念할 수는 없다.

우리는 1970年 朴大統의 8.15宣言以後 韓半島에서의 平和의 定着 平和統一의 條件調成을 目標로 6.23宣言에 이르기 까지 北傀에 對해서 侵略政策의 拋棄 內政不干涉 煽動中止 南北對話를 통한 不信의 解消와 信賴의 回復 多方面의 交流와 協力關係의 促求 不可侵條約締結을 통한 相互侵略 殘權의 排除를 主張해 왔다. 이러한 條件들은 平和統一을 위한 先行條件이며 이러한 우리의 政策은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4大強國의 緊張緩和政策과 符合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Ford美國大統領의 就任으로 美國의 外交政策은 새로운 章으로 넘어가 Détente政策에서 未解決의 章으로 남아 있는 部分의 解決을 서두르는 것 같다.

그 徵兆로서 古巴와의 修交를 推進하고 있고 蒙古와의 修交에도 積極性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 美國의 對蒙古修交는 亞細亞에 있어서 美·日·中·蘇의 4強關係의 現狀固定化에 先行되어야 할 問題이고 보면 不遠 實現이 可能할 것이고 美國의 對中共關係도 10月 2日의 홀 부라이트·함푸리 議會팀의 訪中과 今年末 豫定된 키신저의

訪中計劃은 美中共關係 正常化가 不遠함을 意味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極東에 있어서의 4強體制의 固定化가 南北韓間의 平和共存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平和가 반드시 安定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며 局地戰의 危險性을 排除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이스라엘 - 아랍戰爭과 사이푸라스事態가 如實히 말해주고 있다. 北傀는 뚜렷한 理由나 名分도 없이 7.4 共同聲明의 精神을 違背하여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키므로써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은 水包로 돌아가고 南北關係는 다시 原點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南北韓關係의 緊張은 더욱 激化되고 北傀의 南侵 可能性은 그 어느때 보다도 增大되고 있다. 그것은 北傀가 赤化統一 野慾을 버리지 않고 있는 때문인 바 이제 그 對南赤化統一의 戰略을 暴露하며 그 内幕을 正確히 認識하고 이에 對処하므로써 北傀로 하여금 赤化統一 野慾을 拋棄케 하고 우리의 平和統一 努力에 應하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오늘의 우리의 座標를 똑바로 認識하기 위하여 分斷 30 年の 歷史속에서 北傀의 對南戰略은 어떠한 變遷을 거쳐 今일에 이르렀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六. 北傀의 对南戰略

實로 「韓國」의 問題를 生覺함에 있어 基本的 制約條件이 되는 것은 国土分斷의 現實이다.

그러나 「分斷」의 問題는 畢竟 「統一」의 問題이기도 하다. 兩分된 分斷國은 再結合 즉 統一을 追求한다. 이것은 分斷의 瞬間으로부터 始作된 民族의 共通된 숨기찬 悲願이다. 그러나 北傀는 「統一」의 問題를 「革命」의 問題로 보고 있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8.15 解放과 더불어 나타난 金日成은 蘇聯軍의 庇護와 支援下에 共產政權을 樹立하고 오늘날까지 北傀 特有의 一人獨裁體制를 完成 強化시켜 왔으며, 最近에는 全人民의 武裝化와 全國土의 要塞化를 強力히 推進하고 北韓을 好戰的 戰鬪集團化하여 南韓에 對한 武力 赤化統一을 豪言하면서 이른바 「南朝鮮革命」을 획책하여 왔다.

1. 北傀의 特異性

우리가 諸般 北傀事情을 正確히 理解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北傀의 몇가지 特異性を 밝혀 둘 必要가 있다.

現代 北傀의 權力構造는 勞動黨이 三權위에서 一黨獨裁를 具現하고 있는 典型的 共產主義體制를 이루고 있다. 北傀勞動黨은 超憲法的 超國家的 黨優位의 絶對性에 立脚하여 北傀의 모든 權力과 政策決定의 根源이며, 指導的 核心체일 뿐 아니라 黨의 機能도 強力한 大衆統制, 大衆督勵, 大衆監視에 두고 있다. 따라서 北傀의 모든 對南革命戰略의 源泉도 勞動黨이다.

労働党規約에 党的 目標은 共產主義社會의 實現에 있다고 하고 이어서 南北統一에 對한 党路線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조선 労働党은 南北 조선의 廣範한 人民大衆을 自己의 周圍에 튼튼히 團結시키며 營農同盟을 基礎로 한 全 조선의 各界 各種 愛國的 民主力量들과의 統一戰線을 強化함으로써 우리나라 北半部를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의 強占과 그 走狗들의 反動統治로 부터 解放하고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祖國의 完全한 統一을 達成하기 위하여 鬪爭한다」

結局 北傀의 모든 對南戰略은 위의 党規約에 根柢하여 對內외의 情勢와 與件에 敏活하게 適應하면서 時期別로 뉴앙스의 差異는 있으나 平和 . 武力 및 革命的 對南 統一戰略이 形成 提起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過程을 거쳐서 形成된 主体思想은 오늘날 党的 思想體系에서 基礎를 이루고 있으며 金日成派 以外의 어떠한 宗派의 存在도 容納하지 않는 이른바 「金日成主義 . 金日成의 党」까지 登場시키고 金日成에 對한 個人 偶像化와 個人 獨裁體制의 強化는 다른 共產國家에서는 到底히 찾아 보기 힘든 特性이라고 할 수 있다.

즉 北韓에서는 金日成을 太陽으로 比喩하고 있다. 그리하여 「金日成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며 金日成이 行한 대로 行해야 한다」는 것을 公公然한 社會的 律法으로 만들어 버렸다. 金日成은 마치 이 世상에는 存在하지 않는 神으로 되어 있는 것이 北韓의 現實이다.

다음 特異性은 이른바 「民主基地」 路線 다시 말해서 北韓地域을 強力한 政治 經濟 軍事的 「民主基地」로 만들어 南韓地域을 共產化

하겠다는 政治路線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찍이 北傀는 1945年 10月 平壤에서 열린 「朝鮮共産黨 西北五道黨 責任者 및 熱誠者大會」에서 北韓을 革命基地로 만들어야 한다고 強調했다고 한다. 이에 關하여 北傀의 歷史敎材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解放後 美帝의 南朝鮮 強占으로 因하여 우리 革命의 複雜性과 艱苦성이 조성되었다. 우리 祖國에 조성된 이 複雜한 情勢는 全朝鮮的으로 되는 革命의 同時的 發展을 不可能케 하였다. 우리 革命의 長期間에 걸친 艱苦한 鬪爭에서 終局的 勝利를 保障하기 위해서는 革命力量을 蓄積하고 全國的 範圍에서 革命課業의 遂行을 保障하는 問題가 必要하였다. 때문에 金日成동지는 우리나라 北半部에 쓰런 軍隊가 進駐한 有利한 條件을 利用하여 民主(革命)基地 創設에 대한 이 方策은 完全한 統一獨立을 達成하기 위한 物量的 基礎를 축성하게 될 革命的 方針이다」

이와같이 金日成은 北韓地域을 革命基地로 強化하는 것을 統一問題 解決의 先次的 課題로 提起하였다.

金日成은 스탈린의 革命輸出基地의 概念을 본따서 北韓을 「民主基地」체制로 建設할 것을 口號로 내 세웠지만, 거기에 內包된 意味는 스탈린의 그것 보다는 훨씬 더 積極性을 띄고 있을 뿐 아니라 金日成이 「民主基地」建設을 내세웠을 때 거기에는 南韓地域의 共産化를 위한 基地로서 北韓地域에 公고한 政治 經濟 軍事的인 共産체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보다 攻勢的이며 積極的인 意圖가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事實 그는 南韓을 武力으로 共產化할 수 있는 基地體制로서 北韓의 態勢를 整備하는데 成功하자, 6.25 動亂을 惹起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基地路線」은 休戰後 開催된 北傀 勞動黨 第6次 全員會議에서 金日成에 依하여 再確認되고 있다.

「停戰協定을 締結함으로써 얻어진 平和期間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一分 一秒를 아껴 가며 北半部に 強力한 城塞의 基地를 建設強化하는 事業에 全党과 全体人民의 力量을 總動員하여야 할 것이다. 強力한 革命基地의 創設은 祖國統一을 일층 더 促進시킬 것이다」

金日成은 다시 1955年 4月에 行한 演說에서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다.

「우리 革命의 源泉地인 北半部の 民主基地를 政治 經濟 軍事的으로 더욱 強化하여 그 民主基地를 比단 帝國主義와 그 走句들의 侵略을 反對하며 共和國 北半部를 保衛할 強力한 力量으로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의 統一獨立을 爭取할 決定的 力量으로 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北韓이 「民主革命基地」라는 그들의 主張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아무런 變化가 없다.

北韓이 南韓赤化와 革命輸出을 위한 基地體制라는 點은 北傀의 共產體制를 다른 共產國家의 그것과 區別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特徵的 要素일 뿐 아니라 北傀共產體制의 硬直性和 好戰性도 바로 그러한 特徵的 要素에 基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對南戰略의 變遷過程

北傀의 對南戰略을 概觀하면 1950年代는 戰後復旧와 經濟建設에 主力하는 한편 基地體制의 強化를 위해 時間을 벌려고 暴力的 印象을 回避하면서 宣戰目的이 큰 南北協商 및 交渉 등을 통한 平和統一攻勢의 展開期였다고 할 수 있다. 이때에 金日成은 主体思想의 提唱과 反對派의 肅清으로 北韓을 金日成一人體制로 굳혀 놓는데 크게 成功하였다.

1960年代에 접어들자 스스로가 韓國보다 優越한 힘의 立場에 있다고 判斷한 金日成은 1961年 勞動黨 第4次 全黨大會에서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基礎建設」의 完成을 宣布하고 비로소 南韓革命의 性格을 밝혔다. 그리고 4.19의 混亂에 便乘하려던 그들의 策動이 失敗한 經驗에 비추어 金日成은 다시 南韓에서의 「地下黨」의 組織과 「反美救國統一戰線」의 形成을 主張하였다. 北傀는 當時 政治的 安定과 經濟建設을 이룩하지 못한 南韓에 對하여 美軍과 <언커크>의 撤收를 主眼으로 한 暴力的인 「民族解放革命論」을 展開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이른바 「四大軍事路線」을 強力히 追求하면서 다시 自派內의 淨化作業으로 「唯一體制」를 더욱 다지고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好戰性은 深化一路를 치달렸다. 美로 60年代 後半에 있어서의 敎次에 걸친 可憎스런 武力挑發行爲는 深刻한 緊張과 不安을 불고 決定的 時期」를 앞당기기 위한 「決定的 鬪爭」으로서 冒險이었으며 「南朝鮮革命」의 性格이 急進的인 暴力革命으로 變移하고 있는 徵兆를 뚜렷이 보여 주었다.

마침내는 1970年 11月 労働党 第5次 全党大会에서 金日成은 70年代 韓國에서의 革命의 性格을 「人民 民主主義革命」이라고 規定하였다. 이것은 「南朝鮮革命」理論이 民族解放과 人民解放을 同時に 追求하는 暴力的 運統革命論으로 轉變하였음을 意味하는 것이다. 南北統一戰略으로서의 「人民革命路線」의 目標은 南韓에서의 이론파 反帝 . 反封建 . 反植民韓國爭에 依한 「人民政權」의 樹立이며 이를 위하여 多様な 各種鬭爭方法을 通해서 政權을 奪取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70年代 「人民革命路線」이 提起에 이르기 까지의 北傀對南 革命戰略의 展開變遷過程과 背景을 살펴 보기로 한다.

가) 平和統一路線

北韓의 共產化는 1945年 8月 소련의 軍事占領으로 始作되었다 金日成은 어려운 北韓事情을 充分히 考慮하면서 소련 軍隊가 進駐하고 있는 有利的한 條件을 利用하여 「모든 것을 소련에서 배우자」는 口號 밑에 北韓의 物量的 . 思想的 實力 즉 「民主革命基地」를 強化하는데 注力하였다. 1948年 8月 15日 南韓에 樹立된 大韓民國과 맞서기 위하여 1948年 9月 9日 所謂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을 樹立하고 韓半島에서 合法的인 政府라고 自處하게 되었다.

다음 해 1949年 6月 28日 이론파 「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結成大會」의 宣言을 通하여 自立的 原則에 依한 南北總選舉를 實施하고 南北統一을 具現하자는 平和統一論을 提案하여 왔다. 다시 1950年 6月 7日 北傀의 祖國統一民主主義中央委 擴大會議는 「平和統一에 必要한 條件과 手續에 對한 討議를 하기 위해서 南北의 政黨 및 社會 團體代表者 協議會를 同年 6月 15日 부터 17日 사이에 海州

또는 開城에서 열자」고 提議하였 바, 이러한 提案은 事實은 一部 人士의 呼應을 얻어 가면서 南韓의 對共戰列을 分斷시키기 위한 偽裝戰術에 不過하였으며 金日成은 南韓地域을 武力으로 共產化할 수 있는 基地體制로서 北韓의 態勢를 整備하는데 成功하자 50年 6月 25日 奇襲的인 對南武力統一을 劃策했던 것이다.

停戰後 北傀의 平和統一攻勢는 다시 1953年 8月5日 北傀勞動黨 第6次 中央委員會 席上에서 行한 金日成의 演說로 부터 始作되었다. 즉 金日成은 祖國統一은 오로지 外國의 干涉없는 平和的 手段에 依해서만 成就되어야 한다」고 宣言하고 나섰다. 그리고 三年에 걸친 戰亂으로 致命的인 損失을 입게 된 金日成은 于先 이른바 「革命基地」를 再建하기 위하여 直接 모스크바와 北京 및 東歐 共產國家를 巡訪하여 經濟支援을 呼訴하였다.

그 結過 北傀는 「戰後復旧 三箇年計劃(1954 ~ 1956)」과 이어 「第1次 5箇年計劃(1957 ~ 1960)」을 樹立 實施하였으며, 千里馬 運動 및 重工業政策으로 北韓經濟 全部門에 걸쳐 社會主義形態의 支配가 確立되었다고 主張했다.

이같이 戰後革命基地의 復旧建設에 全力하고 있는 金日成은 國內外로 부터 重大한 挑戰을 받고 있었다. 그 하나는 1953年 3月5日의 스탈린 死亡과 1956年 2月의 소련 共產黨 第20次 大會가 물고 온 「平和共存」과 「反스탈린 運動」이라는 이른바 「호르시초프 路線」의 衝擊이며, 다른 하나는 黨指導部內的 反金日成勢力(親蘇.親中共 및 旧南勞黨派)이다. 金日成은 「호」路線의 北韓波及을 막고 黨內的 金派徒黨을 一掃하기 위한 對備로서 「主体思想」을 들고 나

왔다. 즉 金日成은 1956年 4月의 勞動黨 第三次大會席上에서 「主体性을 嚴然히 確立하자」고 提起하였다. 또한 主体思想을 培養함에 있어서는 「金日成의 계리라神話」로 粉裝된 이른바 「朝鮮人民의 革命的 傳統」이 強朝되었다.

그 過程에서 「革命的 傳統」의 體現者인 金日成에 對한 個個人崇拜가 더욱 高擡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北傀의 前後事情으로 미루어 보아 金日成은 어찌서 平和統一路線을 採択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가 하는 理由를 알기에는 어려운 問題가 아니며 北傀는 繼統적으로 平和的 統一方案을 提示하면서 兪기 찬 對南平和攻勢를 取해 왔다. 즉 1954年 4月 26日 「제네바 政治會議」에서 北傀外相 南日은 다음과 같이 提案하였다.

- ① 모든 外國軍隊의 6個月 以內 撤退
- ② 中立國 監視下의 南北韓 總選舉 實視
- ③ 同總選舉의 施行을 準備하기 위한 南北同數의 全朝鮮委員會의 構成
- ④ 南北間의 經濟, 文化的 交流
- ⑤ 極東의 平和維持에 가장 利害關係가 있는 모든 國家에 依한 韓國의 平和的 發展에 對한 保障

다시 同年 6月 15日 南日은 同會議에서 「南北韓兵力을 각각 10萬 以下로 減縮할 것과 南北韓政黨, 社會團體代表者 會議을 召集할 것」을 同時에 主張하기로 하였다.

1956年 4月 28日 勞動黨 第三次大會에서는 後時의 「제네바提議」를 基礎로 하여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위한 國際會議의 召集을 追加提案

하였다.

한편 金日成은 南北情勢를 至極히 否定的으로 보고 1958年 9月 8日 北傀政權創建 10週年 記念式 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 南朝鮮은 政治·經濟·文化의 모든 分野에서 絶望을 수 없는 破局에 處하여 있습니다. ……」

……오늘 南朝鮮은 그 爲政者들까지도 스스로 認定하고 있는 바와 같이 <四千年來의 民生苦>를 겪고 있습니다」

北傀는 可笑롭게도 이같은 極甚한 南韓의 民生苦를 前提로 하고 當時 進歩黨의 平和統一 論主張 등을 考慮하면서 繼續하여 거의 같은 內容의 虛偽宣傳과 平和攻勢를 取해 왔든 것이다.

外軍撤収問題는 1958年 中共軍이 撤収하게 되자 南韓의 美軍으로 壓縮되었으며 이때부터 美軍撤収가 平和統一의 一次的 先行條件이라는 것을 強調하기 始作했다.

이러한 狀況에서 3.15 不正選舉가 端緒가 되어 自由黨政權이 무너지고 民主黨이 執權하게 되었다. 北傀는 4.19 革命을 「惡名높은 北進騷動의 破産을 意味한다」고 評하고 있드시 即刻 이 事態를 南韓革命力量의 開花로 判斷하고 混亂에 빠진 不安定한 南韓情勢에 便乘하여 政治宣傳과 煽動에 最大限으로 利用하는 同時에 對南平和攻勢는 最高潮에 達하였다.

金日成은 現事態를 收拾하는 길은 오직 美軍撤収 뿐이라고 主張하면서 1960年 8月 15日 慶祝大會의 演說을 通하여 처음으로 다음과 같이 「聯邦制 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① 外國의 干涉없이 民主主義의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總選舉를 實施할 것

② 南北總選舉를 받아 들일 수 없으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聯邦制를 提案한다. 즉 南北에 現存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兩政府의 獨自의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兩政府 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會를 組織하여 主로 經濟·文化發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③ 이러한 提案 등을 同意하지 않는다면 南北實業界代表로 構成되는 經濟委員會라도 組織할 것

④ 南北文化使節의 來往과 科學·文化·藝術·體育 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涉을 다시 한번 提案한다.

⑤ 南韓에서의 美軍의 即時撤退를 要求하며 南北韓軍隊를 各各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少할 것을 提案한다.

⑥ 以上の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代表들이 平壤이나 서울에서 또는 板門店에서 會議할 것을 提議한다.

以上에서 본 그들의 提案內容은 어느 것이나 우리가 곧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은 더 말 할 必要도 없다. 여기에서 特히 聯邦制를 提唱한 目的은 韓半島의 南北分斷을 固定시켜 完全한 1對1의 地位를 確保하자는 것과 聯邦制를 口實삼아 一時的인 民族統一戰線을 形成하는 한편 美軍 및 「언커크」의 撤収名分을 찾자는 데 있었다.

結局 이 期間동안에 北傀는 統一을 副次的 問題로 돌리고 實質的으로는 政治的 安定과 經濟建設에 依한 이른바 「革命基地」의 復旧

強化에 優先權을 두었다. 이처럼 自己体制의 保存.強化를 위해 時間을 벌려고 所謂 「平和統一」을 내 세웠고 이에 맞추어 宣傳目的이 큰 南北協商 및 交涉, 相互減軍, 有関国会議召渠 및 美軍撤収 南北聯邦制 등 平和攻勢를 加熟시켰던 것이다.

나)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

4.19 革命後 国内治安과 政局은 騒亂한 口号과 示威로 지새우는 混迷에 빠졌다. 마침내는 5.16 軍事革命이 勃發하였으며 이는 北傀로 하여금 매우 唐慌케 하였다.

南韓에서 高潮되었던 平和統一論議는 一時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軍事革命의 自由民主体制의 再整備 強化를 통한 굳은 反共의 意志를 感得한 北傀는 5.16 軍事政權의 反共強硬路線을 다시 「南韓에 依한 北進統一路線」이라고 逆宣傳하면서 첫 対応措置로서 1961年 7月6日 「北韓. 소련間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同年 7月11日에는 「北韓. 中共間 友好協力 및 相互援助條約」을 각각 締結하고 軍事体制로의 길을 가다듬기 始作했다.

이와같이 北傀는 5.16 軍事革命의 衝擊에 對備하면서 그들의 對南統一戰略도 革命戰略으로 轉變하게 된다. 이리하여 1960年代의 對南統一革命戰略으로서 登場한 것이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이다.

1961年 9月11日 金日成은 北韓에서의 「社會主義基礎建設」의 完成을 宣布하고 다시 7個年 經濟計劃을 樹立한 勞動黨 第4次大會에서 南韓大衆의 反美鬭爭이 漸高하고 있다는 情勢判斷下에 「美帝國主義는 南朝鮮人民들의 첫째가는 鬭爭對象이며 全体 朝鮮人民들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美國軍隊가 南朝鮮에서의 公高한 平和와 나라의

平和的 統一을 기대할 수 없으며 南朝鮮人民들은 진정한 自由와 解放을 얻을 수 없습니다. 南朝鮮에서의 革命은 帝國主義를 反對하는 民族解放革命이며 封建勢力을 反對하는 民主主義革命입니다. 이 革命의 基本要求는 朝鮮에서 美帝國主義 侵略勢力을 驅逐하고 그의 殖民地統治를 분쇄하여 南朝鮮社會의 民主主義的 發展과 나라의 統一을 達成하는 것입니다」라고 提示함으로써 南朝鮮革命의 性格을 처음으로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金日成은 계속하여

「革命的 黨이 없었고 明確한 鬪爭綱領이 없었으며 따라서 基本群衆인 勞動者 農民이 抗爭에 広範하게 參加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4月 蜂起는 철저히 組織的으로 展開되지 못 하였다.」고 強調하면서 對南工作에서 ① 地下黨建設 ② 「反美救國統一戰線」의 結成과 顛覆活動의 強化 등의 基本方向을 提示하였다.

이와같이 北傀의 對南戰略은 暴力的 手段이 重視되는 革命戰略으로 質的인 轉換을 했다. 앞으로 北傀는 1950年代와는 달리 徹底한 對決意識을 내 세우고 暴力鬪爭을 통한 赤化統一의 具現을 執幼히 主張하게 된다.

그들은 「콧소獨裁를 顛覆하라」고 呼訴했으며 또 「國軍兵士들과 下級將校들은 美軍指揮官들과 國軍上層 半反逆徒黨들의 命命을 단호히 拒否하고 人民의 便에 넘어와야 하며, 全体人民과 團結하여 美帝國主義侵略者들과 그 走句들을 反對하여 鬪爭하여야 한다」고 까지 極言을 하고 있는 점이 注目을 끈다.

1962年 10月 古巴危機가 소련의 對美讓步로 收拾된 事件은 北傀

에게 큰 衝擊을 주었다. 그리하여 同年 12月 勞動党中央委 第4 期 5次 全員會議에서 「造成된 情勢와 聯하여 國防力을 더욱 強化할 때에 대하여」란 議題下에 金日成은 소련의 對美讓步를 無原則 하고 프로레타리아 國際主義에서 逸脫한 修正主義의 兪露라고 非難하고 經濟計劃을 修正 遲延시키더라도 國防力強化에 全力을 集中하여야 한다는 方針아래 「全人民의 武裝」 「全國土의 要塞化」를 提唱하였다. 또한 蘇聯의 不變한 平和共存路線의 追求와 中蘇間 理念紛爭의 激化 및 越南戰의 拮抗 등은 北傀의 危機意識을 더욱 增大시켰으며 北傀의 戰爭準備도 本格化되고 統一問題 亦是 戰爭準備政策의 次元에서 보게 것이다. 다음 말이 這問의 北傀事情을 잘 說明해 주고 있다.

「……1962年 12月の 朝鮮勞動黨 中央委員會 全員會議가 있는 後 左手에는 武器를, 右手에는 망치와 鎚을! 그리고 모든 人民은 武裝하라!는 口號가 北韓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不吉하다. 이러한 口號는 北傀人民軍 創設第15週年을 記念하기 위하여 1963年 2月8日 北京에서 舉행된 祝賀行事에서 強調되었다.

여기서는 韓國統一을 言及하는데 平和的이라는 말이 屢번히 빠지고 있다. 現在의 趨勢는 北韓의 平戰的 態度가 더욱 굳어지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A. 더어크 . 바아넷트 편저 : 아시아와 공산전략 ; pp.313 ~ 314)

1964年 2月27日 金日成은 勞動黨 中央委員會 第4期 第8次 全員會議에서 「우리나라에서 美帝國主義者들을 몰아내고 民族解放運動을 完遂하기 위하여서」는 三大革命力量 즉 ① 北韓革命力量,

② 南韓革命力量, ③ 國際的 革命力量의 育成強化가 必要하며 南韓에서의 「게리라戰術」의 導入이 不可避하다고 結論하였다.

그런데 1964年 3月 서울에서는 韓日國交正常化를 反對하는 學生데모가 發生하였다. 이 學生데모는 6.3 事態에 이르는 進展過程에서 그 性格이 反日的인 過激한 民族主義的 色彩를 露骨的으로 표방하면서 反政府的인 口號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데모樣相의 激化는 北傀에게 南韓의 이른바 革命大衆의 鬪爭으로서 받아들여 졌다.

그러나 學生데모는 그들이 바라는대로 發展되지 않았으며 韓日國交正常化는 既定事實化했다.

한편 韓國政府의 成功的인 政策施行으로 南韓의 諸般事情과 國際的 地位는 더욱 好轉되어 갔고 北傀가 企圖하는 地下黨의 組織과 統一戰線의 形成擴大는 거의 無望하며 南韓의 反共思想이 뿌리 깊고 實力함을 再認識하게 되었을 뿐이다. 韓國의 急激한 成長과 事態好運은 北傀로 하여금 威脅을 느끼게 했으며 金日成은 이것을 그대로 坐視하고만 있을 수 없게 된 것이다.

1965年 1月 金日成은 新任辭에서 「重工業에 總火力을 集中시켜야 한다」고 말하였고, 同年 4月 「인도네시아」의 「알리 . 아르함 社會 科學院」에서 行한 政治學講演에서 南朝鮮革命論을 提示하고 다음과 같이 敷衍하였다.

「南朝鮮革命의 앞길에는 많은 難關과 障礙가 가로 놓여 있다. ... 南朝鮮革命은 가장 暴惡하고 陰凶한 美帝國主義와 같은 強大한 敵을 鬪爭의 對象으로 하고 있다.

南朝鮮은 國內反勳의 集結地이며 소굴이다.

또한 南朝鮮에서는 「反共」思想이 뿌리 깊이 박혀있다.

現段階에 있어서의 南朝鮮革命의 基本方針은 敵들의 彈壓으로 부터 革命力量을 保存하는 同時에 그것을 不斷히 蓄積하고 成長시켜 닥아 오는 革命的 大事變을 맞이하기 위한 準備를 하는데 있다. ……」

北傀는 北韓住民에 대한 統制와 軍事力 增強에 拍車를 加하는 한편, 對南戰術도 보다 積極적인 暴力化로 移行해 가면서 自主路線의 표방과 아울러 北韓力量만의 武力統一方案을 追求하기에 이르렀다. 이와같은 對南戰略의 武力革命으로의 轉換은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以後 確然히 나타난다.

즉 1966年 10月 勞動黨 第2次 代表者會議에서 金日成은 南韓의 情勢가 革命을 誘發할 수 있는 段階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現情勢는 南朝鮮에서 革命力量을 急速히 成長시키며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을 百方으로 礎進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다시 革命의 鬪爭對象으로서 從來와는 달리 「日本 軍國主義者들의 再侵略企圖」를 添加하고 赤化統一의 本心を 赤裸裸하게 告白하면서 「決定的 時期」라는 表現을 使用하고 있는 것이 注目된다.

金日成은 7個年 經濟計劃을 3年 더 延長하기로 하고 四大軍事路線의 強行과 徹底化를 期하면서 이른바 「思想에서의 主体. 政治에서의 自主. 經濟에서의 自立.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示했다.

이로부터 北傀는 武裝間諜의 侵透에 依한 對南挑發을 顯著하게 激化시켰으며 1967年 12月 16日 北傀最高人民會議 第4期 第1次會議에서 發表된 이른바 共和國政府 綱領」은 「南韓을 解放하고 祖國을 統一하는 것은 우리의 崇高한 民族的 任務이며 民族至上의 課業이다.

南朝鮮에서 人民의 鬪爭이 高潮되고 革命情勢가 成熟되고 우리의 支援을 要求할 때는 언제나 南朝鮮人民들과 힘을 합하여 祖國統一의 偉業을 成就할 決定的 鬪爭에 動員될 수 있도록 思想的으로 튼튼히 準備되어 있어야 하겠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우리 世代에 南朝鮮革命을 完遂하고 祖國統一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宣言한 것과, 다시 「祖國統一을 實現하는 革命的 大事變을 主動的으로 맞이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자」고 한 것은 앞으로의 本格的인 武力鬪爭을 시사한 것으로서 매우 重大한 發言이라고 하겠다.

이리하여 그들의 強硬路線은 1968年 1月21日 124軍部隊에 依한 서울 侵入事件과 곧 이은 24日의 美海軍情報艦「푸에블로호」납치事件으로 具現化되었다. 1968年 9月7日 北傀政權創設 20週年記念式 席上에서 金日成이 行한 演說은 욱 狂的인 好戰性을 들어냈다.

그는 「決定的鬪爭은 오직 暴力的 方法에 依해서만 勝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다시 「우리는 必要할 때에는 언제나 南朝鮮人民들과 힘을 합하여 民族解放革命을 完遂하여 祖國統一偉業을 成就하는 決定的 鬪爭에 動員될 수 있도록 万端의 準備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서 「우리 祖國의 平和的 統一은 오직 南朝鮮에서 現 政權을 뒤집어 엎고 進步的 勢力들이 政權을 쥔 다음에야 實現될 수 있다」라고 主張한 것은, 南北統一은 現 韓國政府를 顛覆하고 人民政權이 樹立됨으로써 이룰 수 있다는 暴力的 赤化統一企圖를 如實히 나타낸 것이다.

이어 다음달 10月20日에 北傀는 平壤放送을 通하여 이른바 「正義의 戰爭」이란 至極히 危險하고도 含蓄性있는 말을 다음과 같이 하

고 있다.

「우리는 戰爭을 願하지 않지만 戰爭을 두려워 하지는 않는다. 만일 또 다시 戰爭이 일어 난다면 그것을 革命的 決定的 時期로 맞이 할 것이며 祖國統一을 實現하고야 말 것이다. 우리가 勝利하는 戰爭은 어떠한 境遇를 莫論하고 正義의 戰爭이다」

이러한 北傀의 論調는 人民解放戰爭을 向한 積極的 發言으로서 注目될 뿐 아니라, 그 後 바로 있었던 東海岸 山岳地帶(울진, 삼척)에의 武裝共匪 大規模投入事件은 對南遊擊戰을 위한 秘點 確保를 노린 것으로서 베트콩式 暴力戰術로 指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北傀는 또 1969年 4月 15日 東海 上空에서 美海軍 EC-121型 偵察機 擊墜事件을 惹起시켰다. 이와같은 計劃的 挑發로서 韓半島에 重大한 危機를 造成하려는 그들의 底意는 武力赤化統一을 위한 口實을 찾으려고 하는 可恐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처럼 繼續하여 일어나고 있는 北傀의 大胆한 挑發行爲는 全世界를 놀라게 하였고 尋常치 않은 것을 豫感케 하였다.

어떻든 韓半島 情勢는 極度로 尖銳化하고 深刻한 緊張狀態가 造成되고 있는 가운데 1970年代로 접어들게 되며 더욱이 北傀의 對南統一革命戰略은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路線에서 보다 挑戰的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으로 急傾斜한다. 結局 60年代는 北傀가 四大軍事路線의 強力한 追求와 「南朝鮮革命論」에 따른 好戰的 時期였으며 특히 後期에 있어서의 大胆한 武力挑發의 激化는 「人民民主革命」을 向한 本格的인 探索과 壓力의 試圖였다고 하겠다.

3.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

北傀는 70年代의 對南統一戰略을 構想함에 있어서 1970年 11月2日 開催된 勞動黨 第5次大會에서 「南朝鮮革命」의 性格을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고 다음과 같이 規定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은 美帝國主義 侵略者들을 反對하는 民族解放革命인 同時에 美帝國의 앞잡이들인 地主, 매관資本家, 反動官僚輩들과 그들의 파과 統治를 反對하는 人民民主主義革命입니다. 」

金日成은 鬭爭對象에 「日本軍國主義者」를 包含시키고, 다시 革命의 動力에 關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南朝鮮革命의 動力은 勞動階級과 그의 믿음직한 同盟者인 農民을 비롯하여 美帝와 그 앞잡이들을 反對하는 進歩的인 青年, 學生, 知識人, 愛國的 軍人. 一部 愛國的 民族自本家들과 小資產階級이다 」

이어 大衆속에 깊이 뿌리박은 「맑스-레닌主義黨=革命的 黨」을 強化하고 反帝. 反封建의 旗幟 밑에 各界各層을 網羅한 同調支援勢力으로서의 反美敎國統一戰線을 形成하는데 合力할 것과 特히 青年學生들을 革命隊 五에 튼튼히 묶어 세워야 한다고 強調하고서 또한 革命의 勝利를 위하여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및 半合法鬭爭과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큰 規模의 鬭爭과 작은 規模의 鬭爭과 같은 여러가지 鬭爭形態와 鬭爭方法」을 驅使할 것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現段階에 있어서의 重要한 課業은 反美. 反파쇼 및 民主化 鬭爭이라고 되풀이 하고서 다음과 같이 「人民政權」의 樹立이 革命

鬪爭의 目標라고 말하고 있다.

「南朝鮮革命家들과 人民들의 鬪爭을 通하여 政治的 軍隊를 튼튼히 꾸리고 革命力量을 끊임없이 蓄積하여 나간다면 革命의 決定的 時期를 準備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구경은 現反動政策을 뒤집어 엎고 人民民主主義政權을 세움으로써 南朝鮮革命의 目的을 이룩하고자 할 것입니다」

元來 民族民主主義革命은 民族의 獨立을 爭取하고 過渡的 政權으로서 民族부르조야지 農民프로레타리아-트를 包含한 非共產主義者가 主体가 되어 民族主義者와 共產主義者間의 聯合에 依해 統治하는 民族民主政權의 樹立을 主張하는데 比하여, 人民民主主義革命은 反帝. 反封建의 暴力 非暴力鬪爭을 通하여 프로레타리아-트와 그의 政黨은 勞農同盟의 基礎위에서 革命의 主導權을 掌握, 緊持하는 「人民政策」의 樹立을 本質로 한다.

따라서 北傀가 이번에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을 宣稱하였다는 것은 그만큼 階級的 力量關係와 中共型의 暴力的 運轉革命論을 내세우고 있다는 點에서 對南革命戰略의 急進性을 뜻한다.

앞으로 北傀의 統一戰略을 보면 朴大統領의 8.15 宣稱을 全적으로 拒否하고서 金日成은 「南韓에서 美軍과 現 政權을 그대로 두고서는

나라의 平和統一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強調하고 다음과 같이 提示하였다.

「祖國統一偉業을 實現하기 위하여서는 우리祖國의 統一을 가로 막는 基本障礙物인 美帝侵略者들을 南朝鮮에서 몰아내고 그 植民地統治를 清算하며 現 軍事파쇼獨裁를 뒤집어 엎고 革命의 勝利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南朝鮮에서 참다운 人民의 政權이 서면 共和國北半部의 社會主義力量과 南朝鮮의 愛國的 民主力量의 團合된 힘에 依하여 우리 祖國의 統一은 순조롭게 實現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北傀가 그들의 「革命基地」로 부터의 暴力挑發을 激化시키면서 南韓에서의 反體制運動을 強力히 煽動 推進하고 廣範한 統一戰線을 形成하여 積極的 大衆鬪爭의 展開로 駐韓美軍의 完全撤収와 韓國政府를 打倒하여 赤化統一을 하겠다는 것을 分明히 했다.

結局 北傀는 이번 黨大會에서 「南朝鮮에 民族的 및 階級的 矛盾이 더욱 尖銳化하고…… 人民大衆의 革命進出이 積極化되었으며…… 美帝의 植民地統治에는 보다 深刻한 危機가 造成되었다」는 그들의 對南情勢觀에 立脚하여 對南基本戰略으로서 所謂 「三段階統一戰略」과 「三段階革命戰略」을 設定하고 있다. 즉 먼저 三段階統一戰略은
① 南韓에서의 地下黨組織 및 擴大 ② 그 地下黨을 核心으로 한

労働者・農民・小市民・青年・学生・知識人 및 民族資本家까지 包含한 広範한 反美救国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權鬭爭 ③ 南北韓의 統一戰線을 合同하는 赤化統一의 實現이고, 三段階革命戰略은 ① 地下黨을 中心으로 하여 労働者 農民을 結束시키는 主力軍編成 ② 소위 「人民民主主義革命」을 위하여 모든 勢力을 組織化하려는 統一戰線의 形成 ③ 反革命勢力의 弱화 等이다.

北傀는 위와같은 對南戰略을 達成하기 위하여 國內외의 情勢動向에 順應하여 多様な 各種鬭爭方法 - 政治鬭爭과 經濟鬭爭, 合法, 半合法 및 非合法鬭爭, 暴力鬭爭과 非暴力鬭爭, 大規模鬭爭과 小規模鬭爭을 - 을 配合 온갖 戰術을 集中的으로 展開해 올 것은 自명한 것이다.

그러면 北傀의 「人民革命」戰略構想은 具體的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北傀外相 許淡은 1971年 4月12日 北韓最高人民會議 第4期 5次 會議에서 美國의 「Nixon Doctrine」을 日本軍國主義를 앞장세워 「아시아人끼리 싸우게 하는 凶計」라고 非難하면서 人個項의 統一方案을 提示하여 美軍撤収, 韓美條約과 韓日條約의 廢기 또는 無効化 等 終來와 같은 要求를 해 왔다.

그러나 1971年 7月16日에 公表된 닉슨大統領의 中共訪問計劃은

北傀에게 甚大한 大衝擊이었다. 急作스런 不意의 美中共和解는 北韓을 매우 唐慌케 했다. 北傀가 対応策을 마련할 時間的 餘裕를 전혀 주지 않았다는 点과 더 以上 依持할 수 있는 共產背景大國이 없다는 点에서 더욱 그러했다. 닉슨의 中共訪問計劃을 發表한 7月16日은 中·朝親善週間(7月9日~7月15日)이 끝난 바로 다음 날이었으며 當時 키신저는 北京에 滯在中이었다고 하니 美·中共의 接觸이 얼마나 隱密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Asian Survey, January 1972, p.30) 結局 北傀는 美中關係改善에 基因한 不安과 國內問題의 壓力으로(國防費의 過重支出과 6個年經濟計劃(1971~1976)의 遂行) 南北對坐에 応할 수 밖에 없었다. 北傀는 韓半島情勢를 緊張속의 對立으로 把握하면서도 對話의 側面을 전혀 否定할 수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同 8月6日 金日成은 「감보디아」의 시아누크를 歡迎하는 席上에서 「韓國의 民主共和黨을 包含한 모든 政黨과 公共機關 및 個別人士들과 아무때나 接觸할 用意가 있다」고 言明하였다. 이것은 從來의 主張과 相馳되는 것으로 北傀側은 協商對象의 幅을 無制限 開放하였다.

그리하여 大韓赤十字社 崔斗善 總裁의 離散家族찾기會議의 提議(1971, 8.12)에 1971年 8月14日 北傀赤十字社는 이를 受諾하고 그 次 豫備會談이 同年 8月20日 板門店에서 開催되었다. 實로 分斷 4半 世紀만에 「對話있는 對決」로 斷絶의 障壁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그後 中共의 UN加入(71.10.25)과 닉슨의 中共旅行(72.2.22)은 南北接觸을 加速化 시켰으며 72年 7月4日 이른바 7.4 南北共同聲明이 서울과 平壤에서 同時에 發表되었다. 그 內容은 모두 7個項目으로서 다음과 같이 南北關係의 改善과 統一을 위한 方途 및 그 原則이 담겨져 있다.

① 祖国統一原則

㉞ 自立的 解決

㉟ 平和的으로 實現

㊱ 民族的 大團結 凶謀

② 緊張狀態緩和 및 信賴 雰圍氣 造成

③ 多方面的인 諸般交流 實施

④ 南北赤十字會談 積極支援 協調

⑤ 常設 直通電話 架設

⑥ 南北調節委員會 構成 및 運營

⑦ 合意 事項을 實行할 것을 民族앞에 約束

南北對話의 첫 業績이라고 할 수 있는 「歷史的인 7.4 南北共同
聲明에 立脚한 第一次 南北調節委員會가 1972年 11月 30日 서울
에서 開催를 보았다.

이제 南北韓은 人道的 水準과 政治的 水準에서의 相互接觸을 위한
두개의 對話通路를 갖게 된 것이다.

그러나 南北往來가 促進됨에 따라서 漸次 予期치 않았던 北傀體制
의 不安要因의 抬頭를 意識하게 되자 北傀는 다음과 같은 提案을
되풀이 하여 內政干涉까지 하게 됨으로써 南北對話를 교착 狀態에
빠트리고 있다.

① 對話對象의 擴大 — 南北調節委員會의 擴大 改編

② 協商을 爲한 先行的 條件의 設定 —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
과 南韓內的 環境改善에 따른 反共體制的 變質 要求

③ 諸般問題의 一元的 同時 解決

④ 美軍의 駐韓名分の 消滅을 겨냥한 平和協定 締結
 結局 北傀가 南北對話에 臨하는 基本姿勢는 어디까지나 對話의 擴大를 通하여 南北情勢를 共產化統一의 三大 革命 力量의 現實化를 위한 有利한 狀況으로 誘導하자는데 있다. 즉 「南朝鮮革命」의 与件造成을 打算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北傀의 凶計는 朴大統領의 6.23 平和外交宣言에 대한 直刻的인 反應으로서 金日成이 1973年 6月 23日 밤 체코代表團 歡迎大會 席上에서 提示한 「平和統一5大綱領」으로 集約되어 있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① 軍事的 對峙狀態의 解消와 緊張緩和
- ② 政治, 軍事, 外交, 經濟, 文化등 多方面 合作과 交流
- ③ 南北 各政黨, 社會團體등 各界 代表로 構成되는 大民族會議 召集
- ④ 高麗聯邦共和國의 國號로써 聯邦制 實施
- ⑤ 單一國號로써 U.N 加入

위의 主張은 「合作論」, 「政治協商論」, 「聯邦制案」등을 다시 들고 나와서 美軍撤収와 統一戰線의 形成을 노리는 한편 單一國號로의 U.N 加入은 우리의 6.23 宣言의 真意를 外面하고 分斷固定化와 對話中斷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시킬려는 底意를 노골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狀況속에서 드디어 73年 「8. 28」 金英柱의 對南 非諺 聲明이 나왔다. 北傀는 70年代 周邊情勢의 激動에 따른 環境適應 過程에서 對南戰略의 手段으로서 南北對話를 試圖하였으니 이른바

「南朝鮮革命」推進의 手段으로 活用될 수 없음을 깨닫고 一方的으로 對話中斷을 宣言한 것이다. 이것은 北傀体制의 「絶對的優越性」에 대한 그들의 狂的인 信仰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을 立証하는 것이며 이로부터 北傀의 態度는 다시 硬直性和 好戰性を 表面化하기 시작한다.

金日成은 73年 10月 28日 「불가리아」代表團 平壤歡迎式에서 「統一은 오직 鬪爭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分裂主義者들과는 어떠한 妥協도 할 수 없다」고 宣言함으로써 南北對話의 存在理由를 公然히 否定하였다.

74年 4月 13日 평양放送에서는 「挑發에는 挑發로, 全面戰爭에는 全面戰爭으로」라는 口號를 다시 외치고 있으며 74年 6月 13日 金日成은 北傀를 訪問한 所謂 「페루·北傀親善文化協會」書記長과의 對話를 통해 韓半島統一의 길은 오직 「武力革命」뿐이라고 되풀이하였다.

金英柱는 74年 7月 3日 7.4共同聲明 二周年에 즈음한 聲明을 통해 그간 維持되어온 南北關係에 對하여 「南北關係는 完全히 對話以前의 狀態로 되돌아 갔다」고 公言하면서 그 責任을 韓國측에 轉嫁시키는 一聯의 非難을 大的으로 늘어 놓았다.

이와같은 그들의 好戰性은 1974年 2月 15日 西海 公海上에서 우리 漁船을 包圍 拉致하였고 6月 28日 東海에서는 우리의 海洋警備艇을 擄沈시켰으며 7月 20日 群山 앞바다에 間諜船을 侵透시킨 事件등을 惹起시켰다. 그리고 南韓內의 地下黨 構築과 同調勢力의 確保를 위하여 日本을 基地로 한 間諜의 侵透를 激增시키면서 天人

共怒할 8.15狙撃事件을 突發케 한 것이다.

結局 北傀는 앞으로 더욱 韓半島의 緊張을 造成하면서 「對話」에서 「打倒」로 暴力爲主의 戰術的 轉換을 企圖하고 있음이 確然하다.

七. 結 言

70年代의 韓半島 周辺情勢와 国内事情은 分明히 激動하고 있다. 이른바 「데탕트」暖流가 유럽에서 부터 일기 시작하여 아세아와 韓半島에도 밀어닥친 것이다.

오늘날 全体的 國際社會의 風土는 核戰爭을 回避하고 國家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對決에서 平和共存으로 指向하고 있으며 그들의 現實主義的 國家利益의 追求와 緊張緩和政策은 「韓半島의 現狀 固定化」를 追求하고 있다.

北傀는 이러한 解氷 및 實利追求의 國際潮流에 巧妙히 便乘하여 國際的 支援勢力을 確保 擴大함으로써 韓國政府를 國際적으로 孤立시키는데 注力하고 있다.

또 北傀는 오늘날에 있어서도 冷戰感覺을 버리지 못한채 四大軍事路綫을 強化하고 있을뿐 아니라 繼續 우리에게 대한 暴力挑発과 內政干涉을 일삼고 있다. 그들은 對內外的 輿論의 誤導와 韓國社會內에 矛盾과 不安을 造成하여 統一戰線의 形成을 노리고 급기야는 南北分斷의 固定化와 對話中斷의 責任을 우리에게 轉嫁함으로써 國論과 對共戰列의 分裂弱화에 狂奔하고 있다. 그들은 三段階統一戰略과 三段階革命戰略이라는 이른바 對南赤化戰略을 다시 翻策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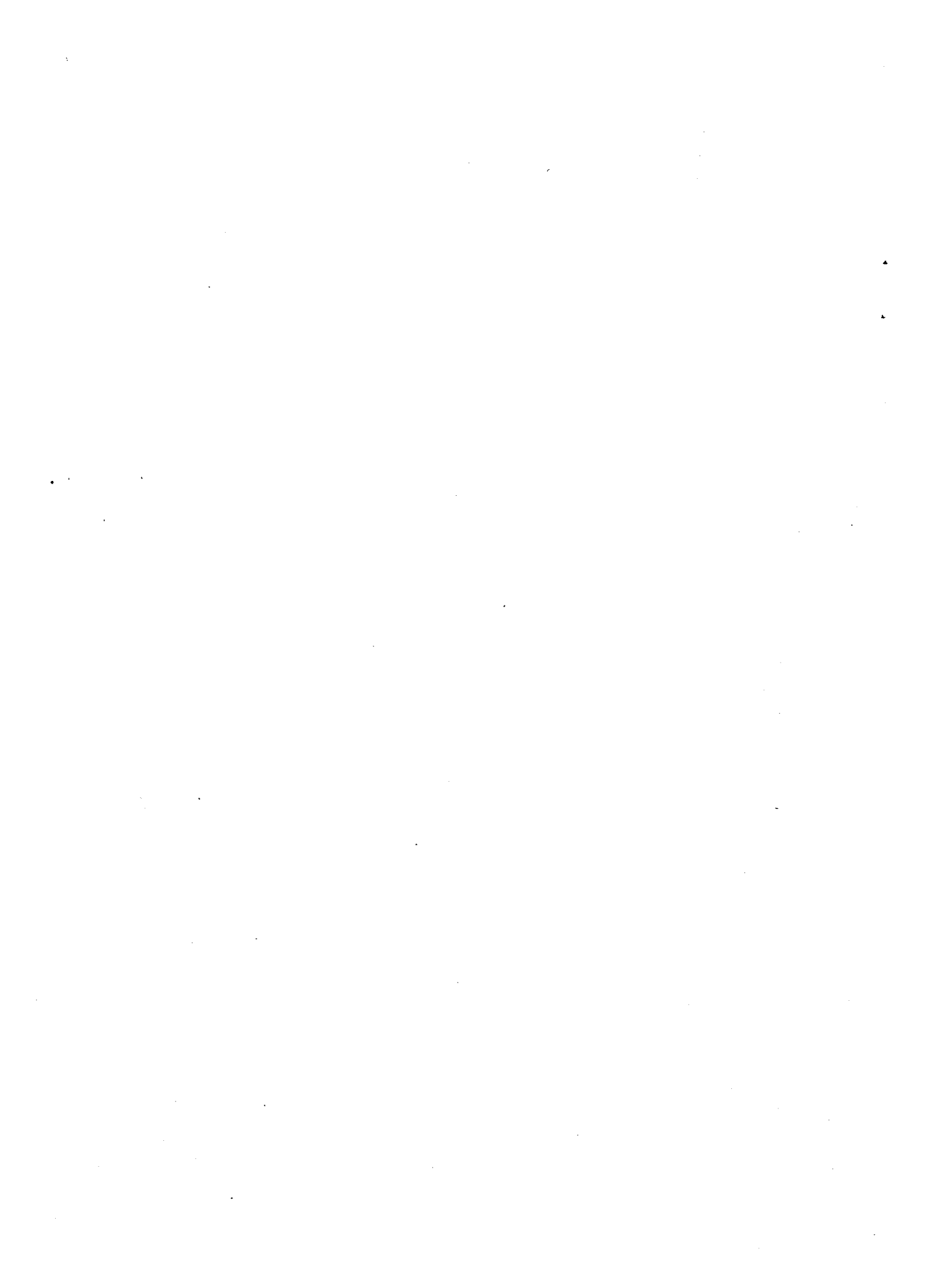
따라서 우리가 注意해야 할 것은 極東에 있어서의 四強体制의 固定化가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平和가 반드시 安定을 意味하는 것도 아니고 局地域의 危險을 除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北韓 社会体制의 異質性은 南北對話를 中斷시키고 있으며 北傀는 앞으로 더욱 大担하게 美軍撤収主張 国民分裂工作 大衆鬪爭의 誘發 및 平和統一攻勢등 各種形態의 挑戰을 驅使하여 종내는 革命的 氣運의 造成에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고 全力하여 이른바 「決定的 時機」로 몰아 가려고 할 것이다.

共産勢力과의 平和共存은 어디까지나 힘과 体制의 優位를 背景으로 하여 成立된다는 基本的 原理를 잊어서는 안된다.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繁榮이라는 民族的 大課業을 成就하기 위하여는 一方으로 北傀의 武力挑發에 対処하면서 維新体制의 內実과 国力培養으로 国民總和의 土전을 着實히 다져 나가야 할 것은 勿論, 우리의 誠實한 平和統一意志가 北傀에 알려질 때 까지 統一努力은 忍耐性있게 꾸준히 繼續되어야 한다.



統一問題 세미나

日 時： 1974. 9. 25. 10:00 - 16:00

場 所： 全羅北道 教育委員會 會議室

基調演說： 李 東 述(全北大学校 總長)

第1主題： 北韓의 社会実相과 變質 可能性 展望……朴 鍾 徹(国
土統一院 社会文化担当官)

第2主題： 北傀의 对南戰略……梁 琮 勳
(全北大 法政大学長)

第3主題： 統一과 關聯된 周边情勢……蔡 中 熙(所長 兼 法政大学
教授·政博)

討論參加者

趙 英 彬 (司会 全北大 法政大学 教授)

김 영 호 (全北大 法政大学 教授)

김 상 태 (全州教育大学 教授)

유 철 중 (全北大 教養課程部 教授)

윤 등 현 (국토통일원 보좌관)

이 환 구 (群山教育大学 教授)

탁 진 환 (全北大 法政大学 教授)

綜 合 討 論 要 旨

이날 午後 趙英彬교수의 司會로 繼續된 綜合討論에서는 김영호, 탁진환, 유철중, 윤동현, 김상태, 이환구교수의 順序로 질의가 계속되었다. 發表된 질의내용 중에서 特히 탁진환교수는 「北韓權力構造의 特性을 들어 權力核心의 엘리트充員에 專門家 出身의 진출이 增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 合理的이고 自律的인 政策決定이 可能하다고 보아」統一의 밝은 展望을 시사하고 있으며 유철중교수는 「백만명이나 되는 海外교포들에게 좀더 教育的인 次元에서 弘報活動을 強化하여야 한다」고 主張하여 이날 參席한 청중들의 共感을 샀으며 마지막 질의에 나선 이환구교수는 「韓國을 둘러싸고 있는 四強體制가 追求하고 있는 <現狀固定化> 政策은 韓國의 南北統一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蘇聯이 提案한 <亞細亞集團安保體制>를 韓國은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內容의 질을 하여 청중들의 至대한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이날 세미나의 綜合討論에서 發表된 토의내용과 以上에서 살펴본 北韓의 社會實相과 變質可能性의 展望, 北傀의 對南戰略, 統一과 關聯된 周辺情勢를 綜合 검토하고 結論的으로 여기에서 提起된 문제의 解決策과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우리의 영원인 統一의 길을 모색할까 한다.

첫째, 北傀의 社會는 長期的으로 볼 때 「金日成唯一獨裁體制」가 完化될 것이며 經濟發展을 위해서는 閉鎖社會로 부터 開放社會로 變

질될 것이고, 따라서 社会構造의 硬直性은 붕괴될 것이다. 한편 短期的 展望으로는 武力強硬策이 強化되고 탄압적인 住民統制가 계속 되고 폐쇄적인 經濟開發과 金日成偶像化政策을 同時에 추구하는 自力 更生原則을 밀고 나갈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에 대한 對策으로 우리가 계속 힘의 우위를 維持하면서 6.23 宣言과 1.18 不可侵協定 제의를 北傀가 수락토록 努力하여 北傀로 하여금 武力강경노선을 포기케하여 韓半島平和定着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自由民의 越等感을 인식하고 國民總和를 이룩하여 国力伸張에 의한 南北 격차의 極大化만이 北韓의 閉鎖的 社会構造의 붕괴를 加速化시키는 길임을 명심하여 国力培養에 前進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70年代 北傀의 對南戰略인 「人民民主主義革命路線」의 目標는 国内的으로 南北對話를 통한 協商戰 心理戰으로 南韓内部에 나타난 矛盾과 고도의 經濟發展으로 인해 파생되는 階級的 矛盾을 極大化하고 潛在된 矛盾을 顯在化하여 國論을 分裂시키고 政府와 國民을 이간시키며 民族的矛盾을 操作하여 南韓의 強点인 韓美日協力 關係를 와해시키며 現政府를 전복하는데 있으며 國際적으로는 中共이 UN에 加入한 것을 기회로 UN加入과 UN에서의 活動을 区分하고 UN을 그들의 선전무대로 利用하여 韓國을 國際社会에서 고립시키고 그들의 同調 勢力을 구축하자는데 있다.

사실 우리는 北韓보다 人口, GNP, 厚生福祉面에서 능가하고 있지만 이와같은 国力이 組織化되지 못했고 有事時에 動員될 수 있는 体制을 정비하고 있지 못하다는 點 經濟적으로 富가 均霑되고 있지

못한 點과 軍事的으로 對外依存度가 크다는 弱點도 지니고 있다. 그리고 北韓은 이러한 우리의 弱點을 最大限으로 利用하여 階級的民族的 矛盾을 操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北傀의 對南戰略의 저의를 간파하고 우리의 취약점을 是正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對內的으로 西方民主主義의 否定的要素를 抑制하고 모든 形態의 政治的 浪費가 排除된 가운데 國民의 基本的人權을 保障하는 韓國的 民主主義를 더욱 견고히 하는 同時에 社會的 不信, 不參理를 除去하여 國民總和를 이룩하고 陸海空의 三軍에 의한 무장방어력을 主軸으로 하여 全體國民이 北韓의 對南心理戰에 대처할만큼 사상무장을 튼튼히 갖추며 自己마을은 自己손으로 지킨다는 예비군의 理念을 生活化하는 總力安保體制를 確立시켜야겠다. 또한 對外的으로 우리는 他共產國家들과 폭넓은 交易을 통해 共產主義社會體制를 理解하는 同時에 北韓을 國際社會로 유도하여 閉鎖的인 北韓社會體制의 硬直性을 완화시켜 그들의 武力南侵 野欲을 버리도록 하여야겠다.

셋째 韓半島를 中心으로 한 美國, 蘇聯, 日本, 中共의 四強大國의 力學關係는 韓半島의 統一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이들 四強大國의 關係는 世界的인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의 추세에 따라 이 地域에서도 「現狀固定化政策」을 추구하고 있다. 特히 韓國에 領土的 野心を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日本은 韓半島에서 緊張緩和와 安全維持로 日本의 安全을 도모하고는 經濟實利를 얻고자 韓國과는 기존협력체제를 계속 확창하면서 北韓에 새로운 經濟市場을 개척하는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취하고 있다.

韓半島가 強大國 政治의 必要에서 分斷된 이후 30年 동안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가 확실히 認識해야 할 것은 祖國의 統一이 결코 外部로 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統一은 어느 경우에나 이를 必要로 하는 國民들의 責任과 決斷에 의해서 성취될 뿐이다. 오늘날 強大國 關係는 冷戰的 對決을 止揚하고 現狀維持를 基調로 하는 平和 共存의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에게 두가지 面에서 注目하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을 造成하고 있다. 하나는 現在 高潮되고 있는 南北緊張의 國際政治의 背景이 긴장완화의 方向으로 定向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 要素는 분명히 우리의 平和統一에 有益한 肯定的 側面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極東의 國際情勢가 現狀維持를 基調로 展開되고 있다는 點이다. 이것은 韓半島의 現狀變更 내지 打破를 前提로 하는 우리의 統一努力을 制約할 否定的 側面일 수도 있다. 이러한 否定的 要素를 肯定的 要素로 活用시킬 수 있도록 南北韓이 平和統一에 合意하고 이를 기초로 統一에 必要한 諸般懸案 問題를 平和的으로 해결하여 緊張緩和潮流에 적합한 통일접근을 시도하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우선 武力이 統一의 手段이 될 수 없도록 平和를 韓半島에 定着시키는 것이며 이 기반위에서 南北韓間의 相互信賴의 분위기를 造成하고 나아가 民族的 同質성과 親和感을 되찾아야 겠다. 또 다른 한편으로 忍耐性 있는 平和統一 努力을 계속하여 궁극적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과거 強大國에 의해 만들어진 分斷의 비극처럼 우리의 운명을 強大國의 恫정에 맡기지 않도록 努力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蘇聯이 제안한 「亞細亞集團安保體制」에

우리가 美国等 우방국의 호의를 저버리면서 까지 참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넷째 8.15 解放의 기쁨과 더불어 強大国들 사이의 政治的 妥協에 의해 韓半島는 南北으로 分断되었고 서로 완전히 두절된 상태에서 30年이라는 歲月이 흘렀다. 이러한 동안 南北韓은 서로 政治 理念을 달리해 왔고 이러한 南北韓의 相異한 政治理念은 社会体制에 反映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南北韓의 社会体制은 異質化되어 본질적으로 對立되게 되었다. 이것은 兩者의 융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또한 国土統一의 重大한 障碍로 되고 있다.

그러나 民族史的 要請, 人道的 要請, 國家發展의 要請과 同時 祖國統一에 대한 우리의 염원으로 지난 30年동안 完全히 兩絶된 상태에 놓였던 南北關係가 역사적인 7.4 南北共同聲明으로 對話를 통한 접촉이 本格化되었다. 7.4 共同聲明이 發表되자 民族의 염원이었던 祖國統一이 단시일내에 이루어지리라는 期待感에 환성을 올린바 있다.

그러나 막상 對話를 통한 南北接觸이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過程에 國民은 統一에 대한 여러가지 見解를 갖게 되어 一部는 先望的 或은 絶望的 또는 회의적인 見解와 樂觀的, 방관적 見解들이 엇갈리게 되었다. 이러한 엇갈린 見解들은 오랫동안 累積된 南北關係와 南北의 相異한 理念과 体制 그리고 相異한 統一目標와 政策을 理解하지 못한데서 기인 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時点에서 南北關係와 統一問題 解決을 위한 課題와 努力을 올바로 理解하여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祖國分断의 유래와 南北間에 누적된 對立關係를 이해하고 쌍방이 시도하는 南北接觸의

性格과 相異한 統一接近 方案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 겠다. 그리고 善意의 경쟁을 통한 統一問題 解決의 主導的 役割을 遂行할 수 있는 우리의 立場을 이해하는 올바른 統一觀을 갖고 인내와 끈기로 南北對話를 再開하고 對話를 통해 南과 北이 相互間의 理解를 증진시키고 交流와 協力을 통해 信賴의 분위기를 조성시켜 體制 差異에 起因하는 緊張을 緩和시켜야 겠다.

統一을 위해 南北對話가 成就해야 할 또다른 目標은 民族의 同質性을 回復하는 것이다. 南과 北이 分斷된 狀態속에서 形成시켜온 異質性은 量과 質의 程度는 상당히 넓고 깊지만 南北韓에 갈라져 살고있는 동포들은 같은 民族이고 또 共通된 民族의 立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對話를 통해 同質性 回復를 促進키 위해서 해결해야 할 課題를 서로 對立되는 분야에서 選定할 것이 아니라 相互有益한 분야에서 選定하여 해결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對話의 素材도 可能한 限 南北이 同意할 수 있는 民族史的 正統性의 観点에서 發掘할 必要가 있다. 對話의 방향을 이와같은 民族史的 正統性을 確立하는 방향으로 同質性의 영역을 넓히고 異質性의 범위를 줄일 수 있을때, 祖國統一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再認識하여야 겠다.

또한 우리는 장기적인 眼目으로 統一問題를 教育的인 次元에서 再論할 것과 反共教育을 재편성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백만명이나 되는 海外교포에 대한 弘報活動에 좀더 注重하여 北韓의 선전공세를 좌절시키는 同時에 海外교포들로 하여금 우리의 統一問題에 眞摯한 관심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다.

以上에서 보는 바와같이 南北統一은 国内的 与件과 國際的 狀況으로 여러가지 難點이 많지만 우리 民族의 영원인 統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大前提下에 우리 국민 각자각 자는 自由民의 越等感을 인식하고 國論을 統一하여 과거 分斷의 비극처럼 強大國의 恫정에 우리의 運命을 맡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우리는 우리의 現實을 理解하고 國民 모두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國民總和를 이룩하여 꾸준한 努力으로 우리 스스로 國力을 培養해 나가며 忍耐心과 성실한 努力의 자세로 統一의 길을 다져감으로서 우리 世代之 비극을 우리가 克服하여 후손들에게 길이 영광된 유산을 물려주어야 하겠다.